

ISSN 2765-7477

2020年 7月 10日 創刊發行

# 文化領土研究

JOURNAL OF CULTURE-TERRITORY STUDIES

第3卷 1號

2022年 6月 30日 發行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題字：友山 宋河璟

## 文化領土研究

2022년 6월 29일 인쇄

2022년 6월 30일 발행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우)028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4길 47  
전화 : (02) 741-1690  
FAX : (02) 741-1691  
E-mail : kish1691@naver.com  
<http://www.rict.or.kr>

進行/洪起哲 · 編輯/張熙一  
印刷 製作/大洋文化社

文化領土研究는 비매품입니다.

# 차례



프랑스에서 한류 열풍과 K-Moive의 의미/05

김민수(백석예술대학교 강사)

지역사회 연계 고등학교 다문화교육 사례 연구/35

- 서울 경문고 <동작 다다름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박범철(경문고등학교 교사)

순수예술 팬덤 확장 방안 연구/79

- 대중예술 팬덤 현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이주영(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교육 방안 연구/103

-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정원기(한국교원대학교 강사)

문화영토연구 회칙/130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139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145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153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155

제3권 1호 논문 심사 경위/161

임원 명단/162



# 프랑스에서 한류 열풍과 K-Moive의 의미

김민수<sup>1)</sup>

## [국문초록]

한국 문화는 K-Pop, 출판, 영화, 웹툰, 패션, 뷰티, 음식, 한글까지 콘텐츠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OTT의 영향으로 촉발된 <오징어게임>(2021)으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K-Movie'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한류의 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 BTS(방탄소년단)의 활약을 필두로 한 K-Pop의 인기와 웹툰,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은 핸드폰 기술의 발달로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K-Movie'에 대한 관심은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2000)과 <취화선>(2002)을 시작으로 해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4)가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타면서 부터였다. 프랑스에서 인지도가 높은 다른 한국 감독으로는 2010년 영화 <시>(2010)로 각본상을 탔던 이창동 감독과 제63회, 제64회, 제65회 3년 연속 칸느 영화제에 초대받은 홍상수 감독 그리고 2011년 <아리랑>(2011)으로 주목할 만한 시

---

1) 백석예술대학교 강사

선 대상을 탄 김기덕 감독이 있다.

프랑스에서 'K-Movie'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마니아층이 형성되는 계기는 봉준호 감독이 프랑스의 유명한 만화 원작을 영화 <설국열차>(2013)로 만들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칸느 영화제에 초대 되었고, 2019년 봉준호 감독 <기생충>(2019)이 제72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타면서 한국 영화는 그 결실을 보게 된다.

프랑스에서 OTT의 플랫폼을 매개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프랑스 미디어 잡지 텔레라마(Télérama)에서 애플 TV+가 제작한 김지운 연출의 한국 드라마 <Dr. 브레인>을 소개하고,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서도 작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K-Movie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가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까지는 1990년대부터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현재의 한국 영화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욱 널리 알리는 데 있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주제어 : 한류문화, K-Pop, 웹툰, K-Movie, 칸느 영화제, 한국감독

## 1. 서론

한류(韓流)는 1990년대 말경 중국에서부터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인 방송, 영화, 패션, 음식, K-Pop 등의 열풍 현상을 통칭해서 말할 때 쓰인다. 한류의 기원을 찾아보면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1993년 MBC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질투>가 중국에 수출되어 방영되었다. 그 당시 한국 TV드라마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도 수출되었다. 1996년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1997년에 CCTV에서 재방송되어 시청률 42%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이후 1998년부터는 한국 음반이 대만과 중국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한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한국 TV드라마와 음악의 인기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홍콩영화의 유행을 ‘홍콩류’, 즉 ‘항류(港流)’라고 불렀고, 1990년대 일본 TV드라마,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유행을 일본 스스로 일류(日流)라고 지칭했다. 이러한 ‘~류(流)’ 표현은 ‘~식’, ‘스타일’, ‘~파’ 등의 뜻으로 일본에서 쓰는 일본식 용어다. 1990년대 말 일본을 모방한 한국 TV드라마와 음악의 인기가 중화권에서 시작되며 일본에서 사용되는 ‘~류’의 일환으로 ‘한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sup>2)</sup> 정리하자면 1997년경 한국 TV드라마가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고, 1998년부터 한국 대중음악이 일본 등 해외 진출로 인기를 얻게 되자 한국문화의 열풍을 중국, 대만에서 한류(韓流)로 부르기 시작했다.

---

2) 장규수,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167-168쪽.

2000년대 들어 한류는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아랍권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한국 대중문화를 세계에 널리 유행시키고 있다. 초기 한류는 ‘한국의 흐름’을 영어식 표기 ‘Korean Wave’로 사용 했지만 현재는 발음 나는 대로 ‘hallyu’라고 쓴다.

최현철은 한류의 역사를 장르와 각 장르의 특징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한류 1.0은 1997년~2000년대 중반까지 ‘한류의 태동’ 시기로 주로 영상콘텐츠가 중심이 되어 영화, 가요, 드라마가 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류 2.0은 2000년대 중반~2010년 초반 ‘한류의 확산’ 시기로 아이돌 가수가 주축이 되어 한국 대중가요(K-Pop)가 유행을 이끌며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한류 3.0은 2010년 초반 이후로 한류<sup>3)</sup>의 다양화 시기로 한국 문화(K-Culture)가 널리 자리 잡으며 한국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전통예술, 음식, 관광, 패션, 미용, 의료까지 한국문화가 전 분야로 퍼져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음식, 패션, 화장품을 소비하고 미용 시술을 받을 받는다. 심지어는 콘서트장에 가서 K-Pop을 따라 부르기 위해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류의 인기를 수치로도 살펴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총 92개국의 1,594개 동호회에서 7,312만 명의 한류 팬이 활동하고 있다. 대륙별로 아시아 대양주가 4,423만명, 미주 1,881만명, 유럽 994만명, 아프리카와 중동 12만 명이다.<sup>4)</sup> 이와 같이

3) 최현철, 「한류 4.0, 신(新)한류는 어떤 대중문화인가? D. 닷슨의 대중문화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예술』, 제11호, 인문예술학회, 2021, 255쪽.

4) 이병하, 「4차산업혁명시대, 한류와 블록체인의 융합 전략」, 『미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2018권(제2호), 미래학회, 2018, 228쪽.



한류의 콘텐츠 가능성은 국가적 이미지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신한류'의 바람은 BTS(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한국의 K-Pop 아이돌 가수가 중심축이 되어 이끌고 있다. K-Pop의 인기는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 2. 프랑스에서 한류 열풍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타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보수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처럼 세계 제일의 예술과 문화 강대국이라는 프랑스는 문화 수용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류의 붐이 일어나기 전 한국을 알리는데 일등 공신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와 4강 신화 그리고 유럽의 최강팀을 역전승으로 꺾는 기적의 드라마는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각인 시키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프랑스의 축구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데 한.일 월드컵 전 1998년 월드컵 개최국이었으며 그해 프랑스는 우승을 차지했다.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오르자 프랑스 언론은 한국 축구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일본의 문화와 영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일본 만화(망가)의 경우, 프랑스 젊은 세

대뿐만 아니라 만화를 좋아하는 어른들까지 일본 망가의 독자층은 이미 두껍게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문화는 일본에 비하면 뚜렷한 특색이 없었다. 그나마 1990년대 말경부터 한국 영화가 칸느 국제영화제에 초대 되면서부터 프랑스는 한국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2000)이 칸느 국제영화제에 초대되면서부터 한국영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한류의 열풍은 영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영화가 칸느에 초대되고 잡지나 언론에서 한국영화를 소개하면서부터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은 한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 언론은 처음에는 한류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한류, 특히 K-Pop 아이돌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이돌 가수와 K-Pop 가수에 대해서 비판적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프랑스에서 한류의 긍정적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였고, 본격적으로 한류의 붐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11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파리 공연이 출발점이었다. 현재는 BTS(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호의적으로 바뀌어 프랑스 청소년들도 한류 열풍에 쌓여 있다.

한편 2019년 제72회에서 칸느 국제영화제(Cannes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이 황금종려상(Palme d'Or)을 받으면서 한류와 한국영화(K-Movie)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봉 도르'(봉준호의 성과 불어로 된 상 이름 뒷부분 '도르' 합친 것)라는 애칭까지 얻

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한류 열풍은 영화나 드라마, 웹툰, K-pop, 한식, 뷰티, 심지어 패션까지 아주 다양하다. ‘2019년 해외한류실태조사’<sup>5)</sup>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호감이 가는 국가이다’라는 긍정의 대답이 66.6%를 차지했다. 아래의 도표는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sup>6)</sup>

〈표1〉 2019년 해외한류실태조사

3.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 (Base: 해당 콘텐츠 경험자, 단위: 시간, 편, US\$,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b>드라마</b>	Base (265)	(139)	(126)	(67)	(71)	(72)	(40)	(15)
	전체 소비량(시간)	16.0	15.6	16.4	16.9	14.2	11.6	22.4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시간)	7.2	7.0	7.4	8.1	6.6	7.1	7.4
	소비 비중(%)	58.4	63.4	55.1	53.3	62.5	69.2	50.5
	월평균 지출 금액	11.2	12.1	10.2	8.4	8.2	17.2	11.7
<b>예능</b>	Base (250)	(138)	(112)	(64)	(63)	(75)	(37)	(11)
	전체 소비량(시간)	12.4	12.8	12.0	13.8	11.7	9.5	15.9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시간)	6.2	6.4	6.1	6.7	5.4	6.4	7.2
	소비 비중(%)	62.0	65.1	58.1	57.3	62.5	73.0	58.0
	월평균 지출 금액	10.5	10.2	10.8	9.9	6.5	13.7	13.4
<b>영화</b>	Base (306)	(169)	(137)	(69)	(77)	(89)	(50)	(21)
	전체 소비량(편)	9.5	9.1	10.1	9.8	9.0	7.2	13.9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편)	4.1	4.1	4.1	4.1	4.6	3.6	5.3
	소비 비중(%)	49.2	54.0	43.2	48.1	52.9	59.7	39.7
	월평균 지출 금액	9.7	9.8	9.5	12.0	6.7	10.5	11.6
<b>음악</b>	Base (295)	(149)	(146)	(85)	(78)	(74)	(44)	(14)
	전체 소비량(시간)	25.0	24.5	25.6	37.3	17.8	20.9	25.0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시간)	6.0	5.3	6.6	8.8	3.6	4.9	7.7
	소비 비중(%)	47.0	52.9	40.9	41.2	49.5	55.0	48.0
	월평균 지출 금액	4.2	4.3	4.0	3.5	3.5	4.3	6.6
<b>애니메이션</b>	Base (230)	(128)	(102)	(62)	(69)	(61)	(29)	(9)
	전체 소비량(시간)	12.2	10.9	13.9	15.6	9.8	10.5	14.2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시간)	6.3	5.9	6.9	7.6	5.0	5.9	8.0
	소비 비중(%)	58.7	65.7	50.0	53.7	58.1	71.4	51.3
	월평균 지출 금액	7.7	8.3	7.0	7.7	4.9	8.8	11.3
<b>도서</b>	Base (193)	(106)	(87)	(45)	(61)	(45)	(34)	(8)
	전체 소비량(시간)	11.5	9.3	14.2	16.7	11.7	6.6	11.0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시간)	6.0	4.9	7.5	8.6	5.7	5.2	5.3
	소비 비중(%)	61.8	67.1	55.4	57.2	63.4	77.1	53.5
	월평균 지출 금액	10.7	9.2	12.5	8.1	8.4	17.4	10.1
<b>게임</b>	Base (222)	(131)	(91)	(65)	(63)	(59)	(27)	(8)
	전체 소비량(시간)	15.7	14.5	17.4	18.4	13.2	11.9	21.4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시간)	6.9	6.7	7.2	8.6	5.7	6.6	6.7
	소비 비중(%)	60.3	64.3	54.6	58.7	59.4	72.6	52.8
	월평균 지출 금액	12.2	11.7	12.9	12.3	7.0	18.5	10.6
<b>패션</b>	Base (232)	(111)	(121)	(55)	(60)	(62)	(37)	(18)
	전체 소비량(\$)	59.4	59.6	59.2	47.9	50.5	61.1	87.0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28.4	33.1	28.0	28.9	22.7	31.2	34.2
	소비 비중(%)	46.3	53.8	39.4	45.0	57.3	48.6	31.9
<b>뷰티</b>	Base (216)	(99)	(117)	(58)	(61)	(55)	(35)	(7)
	전체 소비량(\$)	42.0	44.6	39.8	35.7	30.7	51.8	53.8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20.7	23.0	18.9	18.7	14.5	27.0	26.2
	소비 비중(%)	53.1	58.6	48.5	48.8	56.7	57.7	50.2
<b>한식</b>	Base (345)	(187)	(158)	(80)	(88)	(87)	(64)	(26)
	전체 소비량(\$)	113.3	107.3	120.4	92.6	91.4	111.5	168.9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27.9	29.1	26.6	20.4	20.3	38.2	34.7
	소비 비중(%)	38.7	44.6	31.7	38.2	40.8	48.5	28.6

① 구미이 벨스 한국 문화콘텐츠 시장조사사업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다. \* 소비 비중 = 한국 문화콘텐츠 월평균 소비량 / 월평균 전체 소비량 \* 100  
\* 영미의 소비량 단위는 월 평균 편 수 계산부터 및 영미의 소비량 단위는 월 평균 지출금액이며, 그 외의 소비량 단위는 월 평균 소비시간임

요즘 프랑스에서 한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로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2021년 9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Netflix)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한류실태조사』, 2019, 372쪽.

6) 위의 글, 838쪽.

에서 방영한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2021)은 전 세계를 강타했으며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애플TV+에서 제작한 김지운 이 연출한 한국 드라마 <Dr. 브레인>은 프랑스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도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미디어 전문 잡지인 텔레라마(Télérama)에서도<sup>7)</sup>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요즘 프랑스에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K-Pop과 웹툰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한류 확산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K-pop

프랑스에서 K-Pop은 과거의 일부에 한정된 소수 마니아층 사이의 관심을 뛰어 넘어 점차 폭넓게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 유럽 언론에서도 K-Pop의 인기와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유럽 뉴스 전문 채널인 유로뉴스(Euronews)는 K-Pop의 인기를 다루면서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 K-Pop 카테고리가 생긴 것이 유럽에서의 인기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뉴스 기사의 첫 줄을 보면 <*Vous ne savez peut-être pas ce que signifie <Hallyu>, mais vous en aurez fait l’expérience.* : 당신은 어쩌면 ‘한류’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당신은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다.<sup>8)</sup>>라고 쓰고 있다. 그만큼 한류가 프랑스 대중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이야기이다.

7) [“L’Amour flou”, “Dr.Brain”, “Dopesick”... Que valent les séries de la semaine?] <https://www.telerama.fr/ecrans/l-amour-flou-dr-brain-dopesick-que-valent-les-series-de-la-semaine-7004939.php> (검색일자: 2022년 4월 25일)

8) Tim Gallagher, 「K-pop fans are everywhere, but what got Europeans tuning in?」, 『Euronews』, 2021.11.18.(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프랑스에서 K-Pop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6월에 있었던 <SM타운 파리콘서트>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9)</sup> SM은 파리의 대형 공연장 ‘르 제니스 드 파리’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했다. 유럽에서 처음 열리는 ‘SM Town Live World in Paris’ 공연은 유럽의 대표적인 티켓 예매사이트 라이브네이션, 프낙 등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었는데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다.<sup>10)</sup> 이 콘서트는 한류의 가능성과 존재를 프랑스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영국은 2002년에 이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K-Pop를 등재 했다.<sup>11)</sup> 영국과 비교하면 프랑스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은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도 프랑스 언론은 K-Pop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류 팬들의 증가함에 따라 K-Pop 경연대회가 벌어지고 있으며 한류 관련 이벤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래 가사를 더 잘 이해하고 잘 따라 부르기 위해서 프랑스 청소년들은 한글까지 배우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9~2020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K-Pop 스트리밍이 13% 증가했다.<sup>12)</sup> 현재 프랑스에서 K-Pop은 한류를 대표하는 장르가 되었다.

K-Pop이 한류를 대표하게 된 것은 BTS의 영향력 때문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K-Pop을 알렸던 계기는 2012년의 사이의 <강남 스

---

9)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합동공연인<SM Town Live Tour>는 프랑스 파리에서 6월 10일 공연이 예정되었다. 그러나 티켓 예매가 시작되고 15분 만에 매진되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팬들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추가 공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가수는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샤이니, 소녀시대, 에프엑스 등이 출현한다. 박소정, 「SMTOWN 프랑스 파리 콘서트, 현재 팬 요구로 1회 공연 추가」, 『텐아시아』, 2011.05.11.(검색일자: 2022년 5월 5일)

10) 이은정, 「SM 해외콘서트, 공연 전부터 ‘인기몰이」, 『연합뉴스』, 2011.04.29.(검색일자: 2022년 5월 5일)

11) 강준만, 『한류의 역사』, 인물과 사상, 2020, 168쪽.

12) Tim Gallagher, 앞의 글.

타일)이었다. 유튜브에서 공개된 싸이 영상은 161일 만에 10억 뷰를 기록했다. 그러나 BTS의 인기는 K-Pop을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K-Pop 속에 BTS가 있는 것이 아니라 K-Pop과 BTS로 대등 관계처럼 묘사되곤 한다. 가령 해외언론에서는 K-Pop과는 다른 BTS만의 가진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BTS의 노래 가사의 휴머니즘과 멤버들의 사회참여 등을 나열하면서 BTS를 기존의 K-pop 아이돌들의 고정된 이미지를 뛰어 넘은 ‘아티스트’로 인정한다. 과거에는 K-Pop의 성공은 에이전시의 비즈니스와 공장형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폄하를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언론에서도 볼 수 있었다. 프랑스 언론은 K-Pop 가수와 아이돌 가수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똑같은 군무는 마치 군대의 제식 훈련과 같고, 노래는 너무 단순해서 유치하다고 보도를 하고는 했다. 그러나 BTS는 멤버들 개개인의 뛰어난 작사, 작곡 실력, 가사에 내포된 철학, 화려한 퍼포먼스, 트렌디한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의 결핍과 갈망을 대변하는 그룹이라며 K-Pop과의 차별화를 설명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2021년 BTS는 한국 대중음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그들의 노래 두 곡 〈Butter〉, 〈Permission to Dance〉가 모두 빌보드 싱글 차트 ‘빌보드 Hot 100’ 1위를 차지했다. 그중 〈Butter〉는 총 10주 동안 1위를 해서 2021년 빌보드 Hot 100에서 최장기간 1위에 오른 노래가 되었다. 유럽과 프랑스에서 K-Pop의 열풍은 이제 BTS의 영향으로 점점 더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 2) 웹툰

『2021 해외콘텐츠시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만화산업 규모는 약 110억 달러(약 13조 3,700억 원)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1 웹툰사업체 실태조사』에서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약 1조 538억 원으로 집계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 웹툰 시장은 점점 성장하는 추세다.

한국 웹툰이 해외로 진출한 작품 수는 웹툰즈(네이버)가 2,383개로 1위였고, 레진코믹스가 뒤를 이었다. 인기있는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지고 있다. 2020년 12월 넷플릭스에서 웹툰 〈스위트 홈〉을 10부작 드라마로 제작했고,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은 tvN에서 드라마로 만들었다.<sup>13)</sup> 프랑스에서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는 6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만화 시장으로 손꼽힌다.<sup>14)</sup>

네이버 웹툰의 유럽 진출은 201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네이버 웹툰, 투믹스(Toomics) 등 플랫폼이 프랑스에 진출해 있고, 2019년 네이버 웹툰은 프랑스에 사무실을 열어 네이버 웹툰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웹툰’을 출시하여 2020년에 프랑스 라인웹툰 계정수는 100만을 넘었다.<sup>15)</sup>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로 다시 제작된다는 것이다.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쓰〉, 〈편의점 샷별이〉, 〈지옥〉, 〈지금 우리 학

13) 장민지, 「디지털 만화산업의 전환점, K-웹툰」, 『2021 한류백서』, kofice, 2021, 153-155쪽.

14) 박대의, 「프랑스서 출간되자마자 매진...45억뷰 K웹툰 뒤통자」, 『매일경제』, 2021.11.09. (검색일자: 2022년 5월 20일)

15) 장민지, 앞의 글, 168-169쪽.

교는), <킹덤> 등의 작품들은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OTT에 유통되는 한국 웹툰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해외의 젊은 층들이 한국 웹툰의 독자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 설치 확대는 청소년들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프랑스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 개통으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웹툰을 보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다.<sup>16)</sup> 웹툰은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미디어 사이트 L'ADN의 2021년 11월 기사는 프랑스 내에서 한국 웹툰의 추세와 전망에 대해 보도하면서 '2019년부터 한국 웹툰은 프랑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장악하고 있다.'(<Depuis 2019, l'application Webtoon cartonne sur les smartphones des adolescentes.>)고 썼다. 또한 한국 디지털 만화(웹툰) 형식은 스마트폰에서 수직 스크롤로 읽을 수 있어 아주 창조적인 새로운 형태로 혁명적이라고까지 치켜세우고 있다. 네이버 프랑스 마케팅 책임자 에밀리 꾸드라(Émilie Coudrat)는 프랑스에서 한국 웹툰 사용자는 200만이 넘어섰으며 한국 문화의 매력적인 물결의 일부라고 극찬을 하며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sup>17)</sup>

---

16) 양지훈,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툰」, 『한류NOW』, 제47호, kofice, 2022, 32-33쪽.

17) David-Julien Rahmil, 「Dans les coulisses des webtoons, la BD numérique et industrielle qui cartonne chez les ados」, 『L'ADN』, 2021.11.23.(검색일자: 2022년 5월 10일)



### 3. 칸느 영화제의 국제적 위상과 K-Movie 의미

#### 1) 칸느 영화제의 국제적 위상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는 베니스, 칸느, 베를린 영화제가 있다. 그 중에서 칸느 국제영화제는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보다 앞서 1932년에 개막한 이태리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자극을 받아 설립되었다. 프랑스는 1939년 9월에 첫 칸느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 후 1944년부터 2년을 준비하여 마침내 1946년에 제1회 칸느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시 유럽의 사회적 분위기와 네오리얼즘이 잘 맞아 떨어져 이탈리아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무방비 도시>가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1968년 5월 칸느 영화제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유럽 전역의 68혁명의 영향으로 트뤼포와 고다르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로 그해 영화제가 개최되지 못했다.

한편 칸느 국제영화제는 프랑스 정부의 예산과 지원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영화제는 매년 5월 중순에 시작하여 십일 정도 개최하고 5월 말일 경에 끝난다. 영화제가 펼쳐지는 페스티벌 궁 앞으로는 할리우드 배우들도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는 크루아제트 대로가 있으며, 그 사이로 종려나무가 길게 늘어서 이국적 풍경이 펼쳐져 있다. 레드 카펫 행사가 진행되고 튀미에르 극장 앞에서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들이 턱시도를 입고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도 그 위상이 느껴질 정도다. 세계적인 할리우드 배우들조차 칸느 영화제에 참석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는 상업적인 영화로 예술성보다 작품의 오락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럽 영화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인정받는 영화제에 초청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이고 만약 수상을 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칸느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들은 그해 영화의 흐름과 예술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도 2019년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2019)이 황금종려상을 받아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에 초청하여<sup>18)</sup> 축하해주는 것만 보더라도 칸느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한 아시아 국가는 중국, 대만, 홍콩, 이란 등이 있으며 대표적 감독으로 허샤우시엔, 왕가위, 장이모우,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등이 있다. 2018년 제71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2018)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다음 해인 2019년 제72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2019)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아 2년 연속 아시아 감독이 일등상인 황금종려상을 받게 되는 기록을 세웠다. 다시 한번 아시아 영화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칸느 영화제의 수상은 섹션별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경쟁부문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경쟁작 진출 영화는 20여 편이다. 영화출품작은 영화제 개최 일 년 안에 제작한 영화로 세계 최초 공개를 해

18) 그당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증가했었다. 언론들은 이렇게 위급한 시국에 꼭 청와대에서 굳이 '짜빠구리'를 먹어야 하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태도인가? 라는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대 입장의 언론들은 국가적으로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한 기쁨을 영화 관계자를 불러 격려 하는게 무엇이 문제냐?며 논쟁을 일으켰다.

야만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흔히 황금종려상으로 부르거나 최우수 작품상으로 불리는 상이 일등이며, 상패는 종려나무 잎사귀 모양에 황금색으로 덮여져 있다. 그 외에도 두 번째로 높은 상인 심사위원대상(Grand Prix)인 작품상, 심사위원상(Prix du Jury), 감독상(Prix de la mise en scène), 각본상(Prix du scénario), 데뷔 감독에게 주는 황금카메라상(camera d'or), 배우들에게 주는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이 있다.

칸느 영화제의 위상은 까다로운 영화 선정에서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위촉으로도 입증된다. 먼저 작가주의 감독으로 예술성을 인정 받은 감독의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칸느 영화제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초청된 감독의 작품이 수상작이 되곤 한다. '주목할 만한 시선(Un Certain Regard)'에서는 상업적이지 않으면서 한 두 편의 장편영화를 만든 감독의 영화들이 선정된다. 그래서 처음 초청된 감독의 작품이 훌륭해도 일단은 비공식 부문(감독 주간, 비평가 주간)이나 공식부문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되는 것이다. 그 후 경쟁부문에 올라와 주목을 받게 되면 본상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종종 신예 감독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sup>19)</sup> 상을 탈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런 배경에는 계속해서 영화를 만든 거장의 영화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심사위원장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켄 로치, 왕가위, 코엔 형제, 아르노 데블레생, 미카엘 하네케, 라스트 폰 트리에,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마틴 스콜세지, 뤽 베송 등 거장들이 맡아 왔다. 칸느 영화제는 심사위원장의 권한이 크며 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19) 1997년 칸느 영화제에서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 <체리 향기>와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영화 <우나기>가 공동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그 전부터 황금종려상을 받을 수 있는 감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로 감독과 배우들로 구성된다. 비율은 영화제 때마다 달라져서 그해 누가 심사위원장인가와 심사위원 구성의 비율에 따라 누가 어떤 상을 수상할지 예측<sup>20)</sup>하기도 한다. 특히 개막작은 주로 대작을 초청하고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가 상영되었다. 칸느 데일리(칸느 소식지)는 매일 아침마다 ‘경쟁부문’과 ‘주목할 만한 시선부문’에 대한 별점을 게재한다.

2022년 올해로 칸느 영화제가 제 75회를 맞는다. 칸느가 베를린과 베니스 영화제보다 최고의 영화제라는 찬사를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할리우드의 상업적인 아카데미 시상식과 차별화된 작가주의 영화와 신선한 장르 영화를 소개한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필름 마켓이 있다. 칸느의 필름 마켓 규모는 베니스와 베를린 영화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 또한 스타들을 동원한 화려한 파티나 영화 관계자들과 배급회사들을 위한 홍보 행사나 부스도 베니스와 베를린 영화제는 칸느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작품의 홍보도 전략적으로 파티의 내용과 형식에 맞춰 이루어진다. 2022년에도 칸느 영화제에는 90개국 4,000명 이상의 기자와 2,000개 이상의 언론 매체가 취재 경쟁을 벌이며 황금종려상을 누가 탈게 될 것인지, 어떤 영화가 필름 마켓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릴지 그리고 새로운 거장이 탄생할지에 대한 기사를 전 세계에 타진할 것이다.

## 2) K-Movie 의미

---

20)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2004)가 ‘심사위원대상’이라는 소문은 이미 칸느에서 어느 정도 퍼져있었다. 그해 심사위원장은 쿠엔티 타란티노였으며 그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팬이었다.

2010년 이후부터 한국영화와 프랑스 영화에 대한 비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아마도 한국 영화계와 프랑스 영화계가 갈수록 비슷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영화관 매출액이 약 1조 7,630억 원으로, 한국의 1조 7,566억 원과 비슷하다. 연 관객 수도 프랑스 2억 940만 명, 한국 2억 1,987명으로 아주 흡사하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영화가 유럽 국가의 영화와 비교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으며 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에 진출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영화는 여러 유럽 영화제에 출품되어 한국 영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시기는 사회현실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한국의 원형적 요소를 가미한 영화들이 많이 출현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1980년대는 사회나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과 사상 대립 그리고 중산층의 대두된 시기로 경제적인 변화와 혼란기를 맞이했던 상황이었다. 이 시기 한국영화는 검열과 문예영화 제작이라는 창작에 대한 제약과 문학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벗어나 영화만의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다.

한국영화가 유럽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1961년 강대진 감독의 <마부>(1961)가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받아 한국영화가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영화가 꾸준히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시기는 1980년대 이후 유럽 영화제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제3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이두용 감독 <피막>(1981)이 한국영화 첫 본선 진출작이다. 이 작품은 무속을 소재로 해 한국문화의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갖추어 독특하며, 미스터리 장르의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1985년에는

조용원이 출연한 하명중 감독의 <땡별>(1985)이 제3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본선 진출했고, 1987년에는 강수연이 출연했던 임권택<sup>21)</sup> 감독의 <씨받이>(1987)가 제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 한국영화와 배우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한국영화가 칸느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것은 1984년 제37회 때 이두용 감독의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1984)가 ‘주목할 만한 시선(Un certain Regard)’에 선정되면서 부터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양가집 규수는 망자와 결혼을 하여 청상과부로 수절을 해야 하며, 가문을 위해서 씨내림을 받아야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결을 한다. 이 작품은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그릇된 남성중심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서사적 구조는 유럽인들에게 오리엔타리즘적인 면모로 비춰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두용 감독 이후 칸느 영화제에 한국영화가 초대된 것은 십 년이 지난 1998년에 장편 영화 3편,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1998)이 주목할 만한 시선,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가 비평가 주간,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이 15인 감독 주간에 그리고 단편영화 1편, 조은령 감독 <스케이트>가 경쟁 부문에 초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영화는 공식경쟁 부문에 진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비록 장편영화 공식경쟁 부문은 아니었지만 1999년 마침내 한국영화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쟁부문에 송일곤 감독의 <소풍>(1999)이 단편영화 경쟁 부문에 진출하여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장편의

---

21) 영화 <장군의 아들>(1990) 시리즈 3편과 영화 <서편제>(1993)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다. 임권택 감독은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한국영화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다. 당시 <서편제>는 백만 관객이 넘었는데 한국영화 사상 첫 번째 기록이었다.

공식경쟁 부문 진출은 2000년 제53회 칸느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 <춘향년>(2000)이 처음이었다. 그해에는 홍상수 감독 <오! 수정>(2000)이 주목할 만한 시선, 이창동 감독 <박하사탕>(2000) 감독 주간, 정지우 감독 <해피엔드>(2000)가 비평가 주간에 초대되어 한국영화 사상 최다 진출작을 배출했다.

2000년 이후 프랑스에서 한국영화와 감독의 위상은 조금씩 높아져 갔다.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 식사>(2000)와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sup>22)</sup>(2000)이 프랑스 극장에서 개봉하며 언론에 조명받기 시작했다. 2011년 한국영화 감독이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봉준호와 이창동 감독이 위촉되었고 송강호 배우도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으며 한국영화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2005년에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50편의<sup>23)</sup>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이창동 감독의 <시>(2010)의 여주인공 윤정희 배우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아래의 표<sup>24)</sup>는 초창기 한국영화의 흥행 실적이다.

〈표2〉 프랑스에서 한국영화 흥행 실적

개봉 년도	2000년	2003	2004	2005	2006
감독	임권택	김기덕	박찬욱	김기덕	봉준호
영화제목	취화선 (2002)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올드보이 (2003)	빈집(2004)	괴물 (2006)
관객수	31만 명(약)	22만 명(약)	14만 명(약)	14만 명(약)	16만 (약)

22) 영화 <거짓말>은 ‘호불호가’가 분명해서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관객들도 있었다.

23) 민지은 외, 「2000년 이후, 프랑스 영화 시장에서의 한국영화현황」,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6집, 한국프랑스학회, 2011, 18쪽.

24) 위의 논문, 5-6쪽.

### (1) 임권택

임권택 감독은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감독에 속한다. 그의 작품은 해외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한국영화를 알리는데 일조해 왔다. 그러나 칸느 영화제는 그의 영화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마침내 2000년 칸느 영화제에서 그의 영화 <춘향전>(2000)을 초대한다.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 장편영화 경쟁부문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영화 <춘향전>(2000)<sup>25)</sup>은 칸느의 팔레 데 페스티발 홀인 루미에르 극장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영화가 끝난 후 2천 명 정도의 관객들이 십 분간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독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는 ‘서사적, 동화적, 시적인 작품’이라며 호평을 했다. 칸느와 가까운 코트다쥐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니스 마탱(nice matain)도 황금종려상을 받을만한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영화 관계자들도 현지 분위기에 들떠서 감독상 혹은 심사위원대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칸느 영화제의 특성은 한 번 만에 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권택 감독은 장르를 넘나들며 영화를 만들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적인 것’, ‘민족적’, ‘한(恨)’을 영화의 소재로 자주 택했다. 1980~1990년 이후 그의 영화들을 살펴보면 <만다라>(1981), <씨받이>(1987), <아다다><sup>26)</sup>(1987), <아제 아제 바라아제><sup>27)</sup>(1989),

25) 원작 소설 <춘향전>과 임권택 감독 영화 <춘향전>은 차이를 보이는데, 영화는 ‘조상현 완판 판소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감독이 판소리를 영화에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 선택이다. 임권택 감독은 주인공들을 기존 배우에서 찾기보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인 배우 조승우와 김효정을 캐스팅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영화 <춘향전>은 임권택 감독의 첫 번째 ‘판소리 창(唱)’에 관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1993년 영화 <서편제>(1993)로 평론가들의 호평과 대중적 흥행을 동시에 이루었다.

26) 영화 <아다다>(1987)는 제12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신혜수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7) 영화 <아제 아제 바라아제>(1989)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강수연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장군의 아들〉(1990), 〈서편제〉(1993), 〈축제〉(1996) 등이 있다. 임권택 감독 영화에는 판소리와 동양화 그리고 불교 등 동양적이면서 ‘한국적인 것’이 깃들여 있다.

프랑스에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말할 때 영화의 정체성과 미학적인 면을 소개하면서 한국적이며 동양적인 미(美)를 가지고 있고, 여백의 아름다움이 스며있다고 평한다. 즉, 한국의 전통적인 것이 그의 영화 미학에 표출되어 임권택 감독만이 가진 특징이 되었다. 2001년에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임권택 감독 회고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별전은 ‘작가주의 감독’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의미하는데 프랑스에서 임권택 감독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를 알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감독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

## (2) 봉준호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서사가 주축을 이룬다. 그의 영화 〈살인의 추억〉(2003)은 국가 공권력의 부재로 인한 개인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괴물〉(2006)은 미군 부대에서 배출한 오염물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공포에 떨며 가족들이 괴물과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마더〉(2009)는 광기를 가진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으며, 〈설국열차〉(2013)는 자본주의와 계급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기생충〉(2019)은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를 내세우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다. 이 작품은 세계화가 만든 양극화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 영화가 대중성을 가지든 예술성을 가지든 둘 다 해당하는 공통의 부분은 공감력이다.

특히 칸느 영화제는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의 영화들을 경쟁작 본선에 진출시킨다. 칸느 영화제는 가족을 소재로 다루는 작품, 스릴러 장르, 블랙코미디적인 작품을 선호한다. 그리고 친숙하거나 익숙한 감독들을 좋아한다. 이 뜻은 작가주의 감독으로 칸느 영화제와 성향이 잘 맞으며 감독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영화를 이미 여러 번 영화제에 초청했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런 면에서 봉준호 감독은 프랑스와 칸느 영화제에서 이미 십 년 전부터 익숙하고 친숙한 감독이었다. 스릴러물인 <살인의 추억>(2003)이 프랑스 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프랑스 만화의 소재를 영화로 제작한 <설국열차>(2013)를 통해서 칸느 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을 충분히 파악했었다. 그가 작품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 언론과 영화 잡지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으며, 인터뷰도 몇 차례나 하면서 그의 영화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 영화 잡지나 칸느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데일리지만 보더라도 <기생충>이 황금종려상 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은 그해 프랑스 영화계가 선정한 10대 영화에 들 정도로 인정받았다. 보통 잘 만든 영화도 평점 4점(5점 만점 기준)이면 높은 점수인데 르 몽드(Le Monde)로부터 <설국열차>(2013)는 5점 만점<sup>28)</sup>으로 호평을 받으며 감독 봉준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칸느 영화제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괴물>(2006)은 감독주간에 초청되어 봉준호는 현지에서 단숨에 주목을 받는 감독이 되었고, 프랑스 영화잡지와 언론 매체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중 이명세 감독의 <형사>(2005)가

---

28) 류은영, 「한류Now」,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프랑스 한류 심층분석』, 제35권(3-4호), kofice, 2020, 51쪽.

113개 스크린을 확보했는데, <괴물>(2006)이 기록을 갈아치우며 250개 스크린<sup>29)</sup>을 잡았다. 프랑스에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사랑은 <괴물>(2006)로 시작해서 <마더>(2009)로 이어졌는데, 그의 작품은 프랑스 영화잡지나 언론에서 뽑는 영화 10편에 뽑히고, 봉준호는 영화계가 선정한 10대 감독에도 들곤 했다. <설국열차>(2013)로 봉준호 감독의 입지가 더 넓어졌는데 한국영화 가운데 최대 관객을 동원한 64만 명의 기록을 세웠고, <기생충>(2019)은 183만 명으로 다시 기록을 바꿨다. 프랑스 영화잡지인 까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éma)의 평론가 뱅상 말로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설명할 때 “Art du piksari(뵉사리의 예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봉준호가 까이에 뒤 시네마와 인터뷰 할 때 자신의 영화를 설명하면서 “뵉사리(piksari)”라고 한 말을 차용한 것이다. 말로사는 그것을 프랑스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뵉사리의 예술은 인물의 어이 없는 실수가 극의 전개와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일컫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에 대해 언론들<sup>30)</sup>은 “공포 영화와 끔찍한 대중 익살극과 자유주의 선언문 사이에서, 한국의 시네아스트는 황금종려상의 진지한 경쟁자로 다가온다.”, “사회코미디에서 블랙코미디로, 블랙코미디에서 공포영화로, 공포영화에서 재난영화로 경유한다.”, “이보다 날카롭고, 폭발적이며, 신랄한 한국의 가족을 보여줄 수는 없다.”, “계급투쟁을 다루는 가족드라마의 중심에서 다시 한 번 유머의 정석을 보여준다.” “<기생충>은 <살인의 추억>과 <괴물>,”

29) 이영진, 「<괴물>, 유럽시장에 도전장」, 『씨네21』, 2006.10.31.(검색일자: 2022년 5월 18일)

30) 이연호, 「<기생충>의 현지개봉 현황, 프랑스」, 『kofic 해외 통신원 리포트2020』, 제20권, kofic, 2020, 11-12쪽.

〈마더〉를 잇는 걸작”이라고 극찬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봉준호 외에도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 감독 등이 예술성을 가진 작가주의 감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김지운, 임상수 등은 그 경계를 넘나드는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즘 프랑스에서는 OTT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까지 시청하고 있다.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는 넷플릭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해 칸느 영화제에 출품을 할 수 없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찬반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옥자〉(2017)는 칸느 영화제에 출품될 수 있었다.

#### 4. 결론

한류의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으며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과연 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었다. 한류1.0은 1997년~2000년대 중반까지 ‘한류의 태동’으로 주로 영상콘텐츠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한류2.0은 2000년 중반부터 2010년 초반 ‘한류의 확산’으로 아이돌 가수가 주축이 되어 한국 대중가요(K-Pop)가 유행을 이끌며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 한류3.0은 2010년 초반 이후로 한류의 다양화로 한국 문화(K-Culture)가 확산되면서 한국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전통예술, 음식, 관광, 패션, 뷰티, 의료까지 확장되었다.

한류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총 92개국의 1,594개 동호회에서 7,312만 명의 한류 팬이 활동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는 국가적 이미

지와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신한류’의 바람은 BTS(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한국의 K-Pop 가수들이 이끌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에서 K-Pop은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와 한류를 대표하는 장르가 되었다.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K-Pop을 널리 알린 이후, 현재 K-Pop이 한류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세계적인 스타 BTS 덕분이다. 유럽에서 K-Pop의 열풍은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 K-Pop 카테고리가 생긴 것만 보아도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프랑스 언론은 K-Pop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인들의 K-Pop에 대한 끊임없이 많은 사랑은 K-Pop 경연대회로 확산되고 있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대학에서는 한국어 과목의 수강신청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웹툰은 인기에 힘입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으며 2020년 넷플릭스에서 웹툰 <스위트 홈>을 제작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한국 원작의 웹툰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프랑스에서 웹툰의 독자를 유입시키는 데 일조를 한 것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 개통으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웹툰을 보는 소비자층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모바일로 웹툰을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 미디어 사이트 L’ADN의 ‘2019년부터 한국 웹툰은 프랑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장악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더라도 한국의 웹툰의 인기를 알 수 있다.

간느 국제영화제에 할리우드 배우나 감독들이 초청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에

초청되었다는 것 자체가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임권택 감독은 <취화선>(2002)으로 제55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 수상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영화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4)가 심사위원대상을 받으며 'K-Movie'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이창동 감독 <시>(2010)로 다시 한번 한국 영화의 위상을 재확인했고, 2019년 제72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 <기생충>(2019)이 '황금종려상'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K-Movie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에도 한국 드라마나 K-Movie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한류 열풍은 긍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 칭찬 일색이지만 한류 열풍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타 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한류 현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나친 판타지 장르의 편중은 오래갈 수 없으며 팬데믹에서 벗어나면 OTT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변화될 것이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강준만, 『한류의 역사』, 인물과사상사, 2020.

### □ 참고논문

류은영, 「한류Now」,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프랑스 한류 심층분석』, 제35권(3-4호), kofice, 2020, 45-56쪽.

민지은 외, 「2000년 이후, 프랑스 영화 시장에서의 한국영화현황」,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6집, 한국프랑스학회, 2011, 1-26쪽.

양지훈,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툰」, 『한류NOW』, 제47호, kofice, 2022, 28-35쪽.

이병하, 「4차산업혁명시대, 한류와 블록체인의 융합 전략」, 『미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2018권(제2호), 미래학회, 미래학회, 2018, 28-35쪽.

이연호, 「〈기생충〉의 현지개봉 현황, 프랑스」, 『kofic 해외 통신원 리포트2020』, 제20권, kofic, 2020, 1-13쪽.

장규수,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166-173쪽.

장민지, 「디지털 만화산업의 전환점, K-웹툰」, 『2021 한류백서』, kofice, 2021, 151-173쪽.

최현철, 「한류 4.0, 신(新)한류는 어떤 대중문화인가? D. 닷슨의 대중문화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예술』, 제11호, 인문예술학회, 2021, 254-269쪽.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한류실태조사』, 2019, 1-550쪽.

### □ 기타

박대의, 「프랑스서 출간되자마자 매진...45억부 K웹툰 뒤통자」, 『매일경제』, 2021.11.09. (검색일자: 2022년 5월 20일)

박소정, 「SMTOWN 프랑스 파리 콘서트, 현재 팬 요구로 1회 공연 추가」, 『텐아시아』, 2011.05.11.(검색일자: 2022년 5월 5일)

이영진, 「〈괴물〉, 유럽시장에 도전장」, 『씨네21』, 2006.10.31.(검색일자: 2022년 5월 18일)

이은정, 「SM 해외콘서트, 공연 전부터 '인기몰이」, 『연합뉴스』, 2011.04.29.(검색일자: 2022년 5월 5일)

David-Julien Rahmil, [Dans les coulisses des webtoons, la BD numérique et industrielle qui cartonne chez les ados], 『L'ADN』, 2021.11.23.(검색일자: 2022년 5월 10일)

Tim Gallagher, 「K-pop fans are everywhere, but what got Europeans tuning in?」, 『Euronews』, 2021.11.18.(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L'Amour flou”, “Dr.Brain”, “Dopesick”... Que valent les séries de la semaine?], <https://www.telerama.fr/ecrans/l-amour-flou-dr-brain-dopesick-que-valent-les-series-de-la-semaine-7004939.php>, (검색일자: 2022년 4월 25일)

## ABSTRACT

### The Hallyu boom and the Meaning of K-Movie in France

Kim, Minsoo<sup>31)</sup>

Korean pop culture, a.k.a K-Pop, is getting its recognition and prominence in all areas of contents and media: publishing, film, webtoon, fashion, beauty, food and Hangeul. Recently, the Korean drama has gained popularity due to the 'squid game' (2021) triggered by OTT and has gained global attention for K-Movie.

Late success of BTS is adding heat to the 'Hallyu boom' in France. Also, webtoon-based K-dramas are getting popular. Webtoons are becoming popular among French teenagers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phone technology.

K-Movie's interest began with director Lim Kwon-taek's 'Chunhyang's Tale' and 'Chihwaseon' and Park Chan-wook's 'Old Boy' (2004) winning the grand prize as a judge. Other Korean directors noteworthy of reception in France include Lee Chang-Dong, who won the Best Original Screenplay Award for 'Poetry' (2010) which became highly popular in France. Also, Hong Sang-Soo, has been continuously invited to the 63rd, 64th, and 65th Cannes Film Festival. Moreover, Kim Ki-Duk was awarded with "Un Certain Regard" for his work 'Arirang' (2011) in 2011.

---

31) Baekseok Arts University



The interest and maniac group for K-Movie in France started to be formed with the Bong Joon-Ho's 'Snowpiercer' (2013), a film based on well-known cartoon. Bong Joon Ho was then soon invited to the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FF) with 'Okja' (2017) and his acclamation marked its peak with Parasite (2019) winning the Palme d'Or in the 72th CIFF.

In France, OTT is a medium facilitating the Korean drama and movie boom. Recently, French media magazine 'Télérama' introduced a novel Korean drama <Dr. Brain>, produced by Apple TV+ and directed by Kim Ji-Woon. On top of that, French daily newspaper 'Le Monde's' covering the piece with great focus and interest is just another sign of significance and promising future for 'K-Movie'.

It has taken about 30 years since the 1990s for Korean films to secure the status and recognition it holds today. It is about time for Korean movies to equip itself with systemic plan and scheme maintain its status in the globe.

Keywords: Hallyu Culture, K-Pop, Webtoon, K-Movie, Kkanne Film Festival, Korean Director

**김민수**

전자우편 : cinema119@bau.ac.kr

논문 접수일 : 05월 31일

심사 완료일 : 06월 20일

게재 확정일 : 06월 27일



# 지역사회 연계 고등학교 다문화교육 사례 연구

## - 서울 경문고 <동작 다다름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박범철<sup>1)</sup>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동작구에 정착한 이주민 참여자와 마을 주민,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탐방을 진행하면서 연계된 인식의 변화가 다문화 감수성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다문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학교 다문화교육 방향을 지역사회 이해교육, 한국어 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과 연결지어 제안해보았다. 다문화교육 대상인 선주민과 이주민, 청소년과 여성이라는 이질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시민성을 갖고 서로에게 공감하고 존중하는지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제언으로는 동작다다름단 참여자들이 2022년 마을활동을 통해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라는 세계시민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마을 주민들을 만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유의미한 연계 활동의 부족 및 엄격한 검증을 통해 도출된 방법론을 적용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

---

1) 경문고등학교 교사

다. 많은 사회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꽃을 든 프로젝트〉 또한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결과 분석과 해석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기존의 학교나 기관 중심 다문화교육의 범주를 벗어나 마을결합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주민과 선주민, 그리고 청소년이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교육을 시도하여 궁극적으로 다문화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지역사회 이해, 다문화 감수성, 이주민과 선주민, 지구인

## 1. 서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경문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단편적으로 참여하거나 강의 위주의 다문화 이해교육 또는 문화체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의 대상인 경문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이다. 학년마다 8학급이며, 각 반의 학생 수는 25명 남짓이다. 2011년 신입생부터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로 바뀌었고 2019년 다시 일반고 전환을 통해 2020년 신입생부터는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다.

2018년에 결성된 동작다다름단은 학교 중심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마을에 기반을 두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출발했지만 전면적 마을결합공동체라는 다문화교육 사례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험을 소개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따져 학교 중심 다문화 교육 현실을 넘어서 마을결합형 다문화교육의 장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의 개별적 경험을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다른 연구의 대상인 이주민들의 경우 D가족센터<sup>2)</sup>(구 D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결혼이

---

2) 2006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역대학에 위탁운영 형태로 출발하여 2007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가족센터로 통합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주민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가족교육팀, 가족상담팀, 가족지원팀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및 통합사업, 방문교육, 이중언어 통번역 등의 업무를 가족지원팀에서 수행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지원팀에서 운영하는 동작다다름단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 경문고등학교에서 운영되어 온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사례 중에 D가족센터와 연계 2018년부터 활동이 이어진 동작다다름단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다만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2021년 활동이 진행은 되었으나 다소 미흡하여 2013년부터 ~ 2017년까지 이어진 연대 활동과 2018년, 2019년 동작다다름단 활동과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기 활동, 그리고 코로나 19가 앤데믹으로 진행되어가는 상황에 맞춰 변화를 시도한 2022년 마을결합형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이다. 다문화교육 관련 모임과 학술대회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 활동가들과 정기적 만남을 가졌다. 학계의 다른 연구자들이 추천해준 최신 연구 사례를 찾아보거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에 선뜻 동의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은 동화주의적인 차별배제모형<sup>3)</sup>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다문화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다문화체험 및 세계시민교실 프

---

3) 한국은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요한 정책 수혜 대상자는 여성결혼이주 여성 및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주의에 머물러 있다. 2022년 3월 현재 국제결혼의 형태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은 168,986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의 이주민 정책과 통합성이 부족한 탓에 한국 사회 이민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광석 외, 『다문화행정론』, 조명문화사, 2014, 30쪽.

로그램, 다문화 학생 한국학습 꾸러미 활동 등이 소개되어 있다<sup>4)</sup>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결된 유관기관 프로그램 안내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 통합가족랜선나들이 온(ON)세계 구석구석 가족얼굴꾸미기, 가족센터-다함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부모코칭 등 각 구청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대상은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형태의 프로그램만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집계한 2022년 3월 현재 체류 외국인 연도별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2022.3.31.)<sup>5)</sup>

연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록	거소신고	
2011년	1,395,077	1,117,481	982,461	135,020	277,596
2012년	1,445,103	1,120,599	932,983	187,616	324,504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2,367,607	1,687,733	1,246,626	441,107	679,874
2019년	2,524,656	1,731,803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610,323	1,145,540	464,783	425,752
2021년	1,956,781	1,569,836	1,093,891	475,945	386,945
2022년 3월	1,966,276	1,569,917	1,089,794	480,123	396,359

4) [교육프로그램 안내] <https://multiculture.sen.go.kr/>, (검색일자: 2022년 05월19일)

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3월호, 2022.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2021년의 외국인 체류인원이 2019년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유효한 사실 분석이 가능하다.

2021년 현재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총 157만 여명으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403,895명, 여기에 미등록 이주민 392,247명 까지 포함하면 이주노동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80만 여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문화교육, 한국어교육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이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동작구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식은 상반되어있다. 2021년 동작다다름단 활동이 끝나고 평가회에 참여한 이주민 가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2022년 요구도 조사 의견 취합 결과,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위치한 고아원, 경로원 청소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여 형태의 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다문화가족으로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코로나 19가 끝나고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마을봉사활동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다문화’라는 용어 안에 여

---

6) 2012년 여성 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은 36.2%로 유럽의 주요 18개 국가의 평균(7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범철, 「다문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2쪽.



전히 간혀있는 선주민들에게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시혜의 대상으로 치부되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 정착기가 지나고 지역사회 가족센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주민의 일원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sup>7)</sup>고 생각하게 되었다.

2006년 다문화 사회 진입을 선포한 한국 정부는 2014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와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문화 유치원 30개 지정 및 운영,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가정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예비학교 형태의 디딤돌 학교 운영 확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실시 등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다문화 인식 개선의 효과는 신통치 않다. 2012년 경기도의회가 작성한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보면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도 포기율이 43.8%에 이르고 있으며,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도 포기율 보다 더 높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2019년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2년 4만 7천명 수준이었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9년 12만 2천명으로 2.6배 가량 늘었다. 국내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전체 학생 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학생 수의 2.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 중도 포기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2세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가 넘어 일반 학생의 3배가 넘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sup>8)</sup>

7) 김지선,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참여에의한 자기효능감 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3쪽-7쪽.

8) 김상용, 「“함께 공부 못해” 따돌림에... 다문화 고교생 20% 학업 포기」, 『서울경제신문』, 2019.01.13.(검색일자: 2022년 5월 14일)

되고 있어 동화주의 차별 배제형의 다문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정부 주도의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은 성과 및 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뿐 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한국 학생과의 갈등 및 확대 등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경문고등학교에서는 2013년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문화 기관과 연계하여 이주민, 청소년,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동작 다다름 단이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적인 다문화 인식개선을 꾀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주중에는 월 2회 정도 학급 자율활동 시간이나 개인별 동아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난민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이주민 인권교육 등을 한국인 다문화 활동가,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주민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국제난민, 북한이탈주민과 만남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2015년 경문고등학교 마을결합형 다문화교육활동은 지역사회 이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과정을 인터뷰 형태로 기록한 후 스토리텔링을 통해 서사 형태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시나리오 등 원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글로 창작한 글쓰기 활동의 경우 제9회 이주민 영화제에 단편 영화로 출품되어 화제에 오르기도 했으나 창작의 산물이다보니 객관성을 잃고 주관적인 느낌을 그대로 드러낸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주관적 경험들 조차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이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측정하기 어려운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주었을 것이다. 이 원고는 그동안 다문화 교육 프로

그럼을 진행했던 연구자 자신에 대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동작 다다름단 활동의 주요 결과물을 분석하여 다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학교 다문화교육의 현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강조된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사회적 괴리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자 생각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용어 안에 내포된 다문화 인식에서 정작 자신들은 다문화 교육 대상<sup>9)</sup>으로 포함하지 않는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 교육부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 한다’고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는 ‘건강자정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임시로 제안한 용어에 불과하다. 이를 학문적 논의나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한 정부기관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대하여 한국인뿐 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반응 또한

---

9) 장한업(2014)은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 다문화 교육을 이민자가정 자녀들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보는 경우나,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경우나, 단순히 이민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한국적응교육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장한업, 『2014 다문화교육 중등교원 직무연수』,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2014, 18쪽.

매우 비판적이다<sup>10)</sup>.

둘째, 한국 다문화교육 연구는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는 학교 현장의 경험, 실천하는 연구가 매우 희소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다문화교육을 교실 수준에서 실천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도 주로 유아 교육 및 초등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11)</sup> 중고등학교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다문화교육 요소를 2015 교육과정에도 반영했지만 학력 신장 중심의 학교 문화가 팽배한 현장에서 토론과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수업 전략이 요구되는 시민성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sup>12)</sup>되어야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교실에서 적용하기에 너무 추상적이다. 교육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만 제시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자문을 맡은 몇몇 교수들에 의한 미국의 다문화교육 모형이나 서구의 다민족국가로 출범한 국가에서 개발한 다문화교육 모형을 한국의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사 그것을 적용하더라도 다문화교

10)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다문화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이민에 대한 열린 사고가 형성된다면, 다문화라는 단어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초의 이주여성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라는 용어에 내재된 부정적 용어 안에는 한국보다 못한 저개발국가 출신 이주민이라는 편견과 한국사회의 하층민을 구성하는 노동계급이라는 종속적 위치와 연관되어 있어 한국인들의 인종적 편견과 혐오에 대한 느낌이 ‘다문화’라는 용어 안에 그대로 함의되어 있으므로 ‘다문화’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명승일, 「이주여성 출신 이자스민 의원 “다문화”라는 단어 사라지길 바란다.」, 『천지일보』, 2015.11.01.(검색일자: 2022년 5월 14일).

11) 김혜숙,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011, 51-89쪽; 장인실·김명희, 「Bennett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50권, 2011, 123-146쪽.

12) 조대훈, 「고등학교 사회과 다문화 수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간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연구』, 제52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1, 47쪽.

육의 직접적인 실천을 해야 하는 현장 교사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넷째,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은 현장 교사들도 많지 않으며 정착기에 다다른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 또한 혼란을 가중<sup>13)</sup>시키고 있다.

이미 삶의 터전에 깊숙히 들어온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공존의 태도는 한국 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문화교육을 통해 편협하지 않은 사고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양한 인종·문화·민족 간의 다름/차이를 존중하고, 그러한 다름/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평등과 정의 그리고 상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4)</sup> 학교의 역할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여 다문화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 의식을 전환시키고 공존의 당위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지역사회연계 청소년 시민교육의 필요성

#### 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

13) 교육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은 2006년 한국어교육과 어머니의 모국어(문화) 교육 병행에서 2007년, 2008년 대책에서는 한국어교육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이 본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이라고 볼 때,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한국어교육이 아니라 국어보충교육이 필요함을 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교육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자녀, 국제난민과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상태이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또는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고 해서 그들이 처한 교육적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장한업, 『2014 다문화교육 중등교원 직무연수』, 20쪽.

14) 위의 논문, 43-70쪽.

는 것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게다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은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해있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령기를 지나 속속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의 틀은 여전히 특정한 계층, 특정한 대상에 머물러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효과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은 지역사회 이해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다문화 교육에 이르러야 한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마을 또한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입시 위주의 수월성 교육풍토 탓에 마을이해 못지않게 다문화 인식 또는, 이해의 정도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려면 청소년들의 다문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을탐방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생각해 냈다. 마을탐방은 지역사회 이해에 기반하고 학교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과 이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소속감과 함께 '다문화 소통과 인식의 변화'라는 가치지향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청소년 시민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으로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참여로써 시민교육,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sup>15)</sup>. 참여를 통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

15) 신수연, 『한국의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5-34쪽.

〈표2〉 참여 시민교육의 개념<sup>16)</sup>

구성 요소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의미	-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의식, 태도, 기술 등에 대한 이론학습	- 참여하는 행위, 실천, 경험을 통한 시민교육을 뜻함. 즉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의 실천적 개념
특징	- 이론과 실천, 행위의 분리 가능 실천, 행위를 담보할 수 없음	- 이론과 실천의 분리 불가 - 실천, 행위 자체가 교육과정에 해당
기대 효과	- 참여의 질 제고	- 참여의 질 제고를 넘어 참여의 양적 확대 가능

〈표2〉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시민교육의 지향점은 지식, 가치, 태도, 이론학습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보다는 참여의 질을 높이고 참여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분리가 불가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삶과 삶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 중심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치적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의 시민성을 형성하고 시민으로서 행동하도록 하는 시민적 기능을 가진다. 허종렬·김상돈(2011)은 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서 본인의 문제에 관하여 참여, 교육, 훈련, 실천하는 것으로 참여와 가치 태도는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교실 안 다문화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마을로 다문화 교육을 확장시켜 마을에서 이주민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하였다.

16) 위의 논문, 55-64쪽.

## 1) 마을교육공동체

삶과 배움의 연계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며, 학습자 주도성 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sup>17)</sup> 주도성이 높아질수록 학습자의 삶에 기반하여 주제를 선택하고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학습자원을 구할 것이며, 학습의 결과를 자신에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8)</sup>

지역사회는 생활 터전으로 구성원들에게 상호작용하고 공통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단위가 될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청소년에게 지역사회는 학교만큼 중요한 삶의 공간이고 참여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교육과정 못지 않게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이 단순 참여형에서 더 나아가 네트워크형이나 참여 통합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나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비롯된다.<sup>20)</sup> 학습은 도구적 지식 습득 과정이며, 수행평가를 비롯한 학습의 결과는 수능 준비를 위한 성적 산출과정에 불과하다.<sup>21)</sup>

반면에 마을교육공동체의 지향점은 경쟁보다 협력과 상생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학습결과물도 개인의 성적으로 산출되기보다 참여한 모두가 성장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sup>22)</sup>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란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17) 주영순,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사례 연구 - 민주시민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제6권, 2021, 45-72쪽.

18) 조윤정, 『경기미래교육 실천전략 수립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17-21쪽.

19) 신중진·신효진,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국내 마을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제1권, 2003, 39-48쪽; 황여정,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태와 방향」,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8, 111-139쪽.

20) 노상우·김관수, 「생태학적 위기와 현대교육의 과제」, 『教育論叢』, 제23권, 2003, 137-155쪽.

21) 김용련, 『마을교육 공동체-생태적 의미와 실천』, 살림터, 2019, 81-95쪽.

22) 위의 책, 100-105쪽.



공동체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일련의 교육공동체를 말한다.<sup>23)</sup> 서용선은 ‘마을과 학교 안에는 학생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삶과 삶의 일치하는 학생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교육의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내용 중심의 수업 전개로 이뤄지는데 이는 학생 개인의 삶과 관심사에서 유리될 수 있어 학생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가 갖는 교육공공성을 마을로 확대하려는 정책이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와 협력하여 함께 실천하려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다.<sup>24)</sup>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종합계획(2019-2022)에서는 혁신교육지구 내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sup>25)</sup>

- 1) 방과후 활동에서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마을 방과후 활동을 강화한다.
- 2) 심과 배움이 있는 방과후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도록 지역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한다.
- 3) 청소년 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마을 방과후 활동과 연계를 추진한다.
- 4) 마을의 교육적 역량을 키워서 마을 연계 협력수업의

23) 김태정, 「마을교육공동체는 한국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2019, 31-42쪽.

24) 위의 글, 36쪽.

25)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자료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종합계획(2019-2022)」, 2019.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즉 마을 교육 콘텐츠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을 높인다.

- 5)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른바 동작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동작구에서 교육으로 길러져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 교육 혁신에 이르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1년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12개 서울시 교육지원청이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경문고 동작다다름단 또한 이러한 미래시대로 나아가는 교육의 변화에 힘입어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단위 활동이 불가피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마을탐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합하는 소통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동작다다름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 2)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삶과 삶의 분리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서용선(2020)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마을에 세워진 학교와 가정에서 교사들이 만나는 학생들이 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삶은 마을, 사회, 국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마을에서 학생들의 성장은 수업혁신으로 이어져 학교 변화를 가져오고 마을 교

육의 원천이 학생들의 삶이 되도록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용선(2020)과 김용련(2019)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먼저 ‘마을을 통한 교육’으로 마을의 인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지역 기관이나 마을 주민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거나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마을에 관한 교육’은 마을의 역사, 지리, 자연, 문화, 산업 등에 대해 배운 후 마을 고유의 특성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주변지역에서 출발하여 점차 마을탐방 활동을 통해 지역을 넓게 이해하면서 마을 지도 만들기, 마을의 역사문화 소개하기 등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위한 교육’은 학생을 지역사회의 구성원, 마을 주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교가 마을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배움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지역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 학교가 평생교육 기관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구분함에 있어 이용운(2020)은 다음과 같은 <표3>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3〉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구분

부분적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전면적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마을초대 프로그램형	마을개방 프로그램형	마을결합형 학년교육과정형	마을결합형 교과교육과정형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형
마을 자원을 학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활용하거나 마을배움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학교시설(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마을에 개방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특정 학년 단위로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교과 및 차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것	특정 교과 단위로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교과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	전체 학교 차원에서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교과 및 차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등 마을에 관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마을 연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마을 축제 참여	체육시설 개방 프로그램, 마을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을 시설을 자유학기제로 운영	생물과의 자연생태 탐사, 역사시간 박물관 견학	정규교육과정 편성 및 거버넌스 조직으로 전면적, 체계적, 통합적으로 운영

경문고등학교 동작다다름단은 전면적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지만 활동 시기와 강사 수급 등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는 마을초대 프로그램형이나 마을 결합형 학년 교육과정형이 추가되기도 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또는 미취학 아동들을 자녀로 둔 이주민 가족의 경우 지역사회 고등학교 개방 형태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가족센터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청소년과 교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다문화교육과 마을탐방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3) 동작 다다름단 활동(2018~2022)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타인과의 만남, 이질성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되어 타인에 대한 공존의 태도를 갖게 된 학습자가 이민자를 불쌍해서 도와주는 인정(仁情) 수준의 다문화 태도를 사회적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인정(認定)하는 단계로 높여줄 수 있다.<sup>26)</sup>

동작다다름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시민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진 민주시민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학습되는 시민성을 이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지와 연계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참여지향적인 시민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sup>27)</sup>

다문화 시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뜻한다.<sup>28)</sup> 다문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것 즉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다. 감수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뜻한다.<sup>29)</sup> 인간이 타문화 집단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

26) 장한엽, 『차별의 언어』,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9, 263-275쪽.

27) 김명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4권, 2012, 1-28쪽.

28) 조대훈·박민정,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을 위한 다문화 수업모형 개발」, 『교육연구』, 제46권, 2009, 29-65쪽 재인용.

29) 위의 논문, 29-65쪽 재인용.

가장 필요한 것은 타문화에 대한 흥미, 타문화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과 타문화를 존중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경문고등학교의 동작다다름단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소통과 변화를 위해 참여자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꾀하였다.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문고등학교에서는 2015 교육과정 및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외 교육과정 형태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배우는 학습자로, 함께 행동하는 리더로 참여한 후, SNS를 통하여 수시로 공유와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고 활동결과물이 공유되었다. 활동결과물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리더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Multitude) 형성’<sup>30)</sup>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든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을결합형 교육활동과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체 동작다다름단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에 있다. 1년 또는 2년 동안 함께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활동내용을 입력해주었더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sup>31)</sup>. 한국의 자원봉사 의식 및 현황은 영국, 호주, 미국, 홍콩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sup>32)</sup> 처음 이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만들어질 때

30) 박설희, 「트위터를 통한 ‘다중(Multitude) 형성과 문화적 실천에 대한 연구:네그리와 하트의 주체구성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11쪽.

31) 2022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변경으로 봉사활동실적 대입 미반영,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가 불가능해졌으나 학교 교육계획서 기재에 의한 학교 주도 봉사활동 또는 사전 계획된 일부 개인별 봉사활동 기재 등이 가능해지는 등 봉사활동 참여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랜 활동의 결과물인지 올해도 동작다다름단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문고등학교, 『2022년 경문고 학교교육 계획서』, 2022.

32) 김미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2쪽.

에는 자발성을 강조했지만 2017년 동작다다름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는 주말 자원 활동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봉사가 아니라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민주 시민교육의 실천으로 잡았기 때문이었다<sup>33)</sup>. 앞서 문제 제기한 고등학교 현장의 입시위주의 학력신장중심의 학교문화가 가져온 폐해였지만 진정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벽이었다. 본교에서는 자원 활동, 현장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 학생의 가족봉사, 자원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감수성의 지속적 증진을 꾀하였다<sup>34)</sup>.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취목표나 활동결과물 등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스스로 동료를 다음 번 모임에 동참시키거나 학년별 SNS 모임 밴드에 활동 결과를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하는 형태로 의사 표현을 했다. 지역 사회와 마을 탐방 활동에 기반을 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주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민을 나누고 삶의 이어짐과 지속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새롭게 알아가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보완해 가며, 앞으로 더 배워야 할 것들은 온라인, 오프 라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이해학습의 즐거움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동,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2022년 동작다다름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표4>와 같다.

33) 박범철, 「다문화 감수성에 기반을 둔 간 문화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실제 - 2015년 경문고 따봉(따뜻한 봉사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어문학회』, 제66권(제8호), 국제어문학회, 2015, 399-436쪽

34) 조찬호, 「가족 공감대 형성, 바른 인성 기르고 세상 보는 눈 키워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동아리, 어른 아님 동료로 참여」, 『조선일보』, 2015.11.01.(검색일자: 2022.5.14.)

〈표4〉 동작다다름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현황(2022)

차시	월	일	요일	활동주제		프로그램 진행
				대주제	소주제	
1	3	29	화	사전협의회	동작다다름단 2021년 만족도조사 및 2022년 요구도조사 의견 취합	가족지원센터
2	4	2	토	동작다다름단 오리엔테이션	동작다다름단 시즌5 주요 활동 계획 소개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개 2. 한국 전쟁과 관련한 동작구 장소 및 2021년 활동 소개 3.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가족지원센터
3	4	16	토	지구의 날 활동 (줍깅과 환경정화 식물 심기)	1. 이수역 주변, 남성 사계시장 골목길 줍깅 2. 제로 웨이스트 샵 플라프리 방문 활동 3. 페페트병으로 만든 관수화분에 공기정화 식물 심기 4.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인증샷, 활동 후기 적어보기 5. sns 및 동작다다름단 밴드에 활동 내용 공유하기	경문고등학교
4	5	21	토	동작다다름단 가족 행사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1. 동작다문화가족센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 (경문고 조00 졸업생, 이주민 가족 대표 김00, 마르셀로 씨) 2. 경문고 문화관에서 진행하는 즐거운 체육돌봄 활동	경문고등학교
5	6	18	토	세계 난민의 날 행사	1. 동작구에 살고 있는 난민과 만나다. 2. 에티오피아 난민과 함께하는 커피 세레모니 (난민 이해교육) 3. 동작구에 난민이 살고 있어요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동작fm 마을 라디오 방송국
6	7	16	토	국제 청소년의 날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생태전환교육)	동작구 곳곳
7	9	17	토	세계평화의 날	지역 사회에서 만난 한국전쟁 이야기 (세계평화교육)	현충원
8	10	15	토	세계 비폭력의 날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펜을 든 청소년, 총을 든 청소년)	흑석동 학도의용병 현충비
9	11	19	토	국제 학생의 날	민주시민 프로젝트-청소년은 교복입은 예비시민이 아니라 이미 민주시민	동작구 곳곳
10	12	3	토	2022년 동작다다름단5 평가회	동작다다름단 교육활동 평가회	가족지원센터



2022년 동작다다름단의 활동 방향은 사전협의회 단계에서부터 UN 지정 국제 기념일을 활용하여 계획하였다. 다문화 교육이 이주민과 선주민을 모두 아우르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 세계 시민교육을 대체 교육 형태로 제안하여 2022년 동작다다름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한 국제 기념일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UN 지정 국제 기념일 현황(2022)

월	일정	내용
3	3/8	세계 여성의 날
	3/21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
	3/21	세계 시의 날
	3/22	세계 물의 날
	3/23	세계 기상의 날
	3/24	인권 침해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 존엄을 위한 날
	3/24	세계 결핵의 날
4	4/7	세계 보건의 날
	4/22	국제 지구의 날
	4/23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4/25	세계 말라리아의 날
	4/26	세계 지적 재산의 날
	4/28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5	5/1	노동자의 날
	5/3	세계 언론 자유의 날
	5/15	국제 가정의 날
	5/17	세계 전자 통신과 정보 사회의 날
	5/21	대화과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5/22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5/31	세계 금연의 날

6	6/4	국제 침략 희생 어린이의 날
	6/5	세계 환경의 날
	6/8	세계 대양의 날
	6/12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6/14	세계 헌혈의 날
	6/15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6/20	세계 난민의 날
	6/23	세계 과부의 날
7	7/11	세계 인구의 날
	7/18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8	8/9	국제 원주민의 날
	8/12	국제 청소년의 날
	8/19	세계 인도주의의 날
	8/29	국제 핵 실험 반대의 날
9	9/7	푸른 하늘의 날
	9/8	국제 문해의 날
	9/10	세계 자살 예방의 날
	9/15	국제 민주주의의 날
	9/16	오존층 국제 보존의 날
	9/21	국제 평화의 날
	9/27	세계 관광의 날
10	10/1	국제 노인의 날
	10/2	국제 비폭력의 날
	10/5	세계 교사의 날
	10/9	세계 우편의 날
	10/10	국제 정신 건강의 날
	10/13	국제 재해 감소의 날
	10/15	국제 농촌 여성의 날
	10/16	세계 식량의 날
	10/17	국제 빈곤 퇴치의 날
	10/24	국제 연합의 날
	10/27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11	11/10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11/14	세계 당뇨병의 날
	11/16	국제 관용의 날
	11/17	국제 학생의 날
	11/20	세계 어린이의 날
	11/25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12	12/1	세계 에이즈의 날
	12/2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
	12/3	국제 장애인의 날
	12/5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
	12/10	인권의 날
	12/11	국제 산의 날
	12/18	세계 이주민의 날
	12/19	남남 협력의 날
	12/20	국제 인간 연대의 날

2022년 동작다다름단 활동의 특징은 이주민과 청소년이 중심이 된 마을탐방 활동에서 세계시민교육 주제학습을 염두에 두고 월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자 사립고등학교인 경문고등학교에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학교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11월 3일 학생의 날 행사에 준하여 기획하고 실행하였듯이 여성이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동작다다름단에서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국제 학생의 날 행사를 준비한다는 점은 사회적 소수자(또는 약자)로서 여성과 청소년이 100년 전 여성참정권 운동의 시작이 된 서프로젝트 운동과 오늘날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의 청소년 서프로젝트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성과 청소년이 연대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2022년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실시되어 온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학교 안의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과 지역 사회(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교육청, 구청, 지역 활동가, 지역 단체, 이주민, 등)와 연대한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프로그램 수강생의 졸업, 단순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학습자 이탈, 점진적, 지속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적합한 수업 모형을 토대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적 틀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서구 또는 유럽 중심의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벗어난 Merryfield(2001)의 3단계 다문화교육 교수 전략<sup>35)</sup>을 한국 상황에 맞게 다문화 감수성 증진모형을 개발한 조대훈·박민정(2009)의 연구를 기반으로 결혼이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방안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방안은 <표6>과 같다.

<표6> 다문화 감수성 증진방안

단계	조대훈·박민정(2009)		결혼이주민학습자	경문고 청소년 학습자
1	사회문화적 신화 낫설게 보기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을탐방(지역사회 이해,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을탐방(지역사회 이해, 세계시민교육)
2	타인(주변인)의 관점에서 세상 바라보기	→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을탐방(지역사회 이해,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을탐방(지역사회 이해, 세계시민교육)

35) Merryfield(2001)의 3단계 다문화교육 교수 전략은 1단계 제국주의 유산과 주류 지식 형성간의 관계, 2단계 주류 사회에서 주변화된(marginalized)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목소리, 3단계 지속적인 반성적인 간 문화적인 경험학습(crosscultural experiential learning)으로 이루어진다. 서구 또는 미국 중심이 아닌 보편적인 인류의 변명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3	간 문화적 글쓰기	→	활동 후 소감 나누기 또는 실천 활동(다문화 감수성 증진)	활동 후 소감 나누기 또는 실천 활동(세계시민의식 확산)
4	격려와 실천방안 모색		SNS 등 활용하여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으로 실천	지역사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으로 실천

Merryfield(2001)의 연구가 미국, 서구 중심의 다문화교육 접근 방식을 식민지 경험을 간직한 아시아 및 3세계 국가의 다문화교육으로 유의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면 조대훈·박민정(2009)은 Merryfield의 문제의식과 교수전략을 활용하여 한국 상황에 맞추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 단계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다시 지역사회 이해교육 대상 또는 민주시민교육 대상, 지역사회 이해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 대상으로 나누어 3단계로 실행하여 지역사회 이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결혼이주민 학습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 결혼이주민의 경우 지역사회 이해, 다문화 감수성 증진, 민주시민의식 성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지역사회 이해, 세계시민의식 확산, 청소년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간다고 가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대훈·박민정(2009)의 연구 단계 중에 1단계 <사회문화적 신화 낫설게 보기>는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일민족주의, 여성차별,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고정관념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 장승배기역에 위한 여장승이 겪은 수난<sup>36)</sup> 등을 마을탐방을 통해 알려주었다. 2단계에 해당하는

36) 김학규, 「그들은 왜 '지하여장군'만 못살게 굴었을까」, 『오마이뉴스』, 2019.03.29.(검색 일자: 2022년 5월 14일)

〈타인(주변인)의 인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의 경우 다문화 교육의 목적 중에 소수자 인권 보호에 부합하여 실제 적용단계에서는 1,2단계를 통합하여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그들의 가족과 마을탐방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은 지역사회 이해와 마을주민으로 민주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세계시민 교육 대상이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만 정작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한국인 청소년들에게는 이주민의 삶을 지지하고 이를 세계시민교육 주제로 재구성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민주시민 활동을 제안하였다.

조대훈·박민정(2009)의 연구 단계 중에 3단계에 해당하는 〈간 문화적 글쓰기〉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앞선 두 단계보다 문화적 정체성,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게 증진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결혼이주민 가족에서는 경문고등학교의 시설을 활용한 〈나의 한국사회 정착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활동〉과 같은 범주로 묶어 동작다다름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인식개선교육 등을 구체화시켰고, 이전 단계에서 한국인 청소년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낸 TEXT를 읽어보거나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시 알려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원주민(한국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주제학습을 통해 에게는 한국사회 이해와 지역사회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실천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나의 주체성을 높이고 상호존중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문고 청소년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이해교육과 지역사

회에 산재한 이주민(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한국전쟁 이후 미군병사들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로 이뤄진 국제학교 이야기<sup>37)</sup> 등 세계시민교육 주제학습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켜 세계시민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조대훈·박민정(2009)의 연구 단계 중에 4단계에 해당하는 <격려와 실천단계의 모색>의 경우는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의 가치추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친정언니’<sup>38)</sup>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부모들과 함께 부모교육, 자녀지도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다문화감수성 증진 대상인 경문고 청소년들과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터뷰 후 창작 글쓰기의 결과물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단편영화를 촬영하여 제작된 영화를 이주민 방송(mwvtv)에서 주최하는 제9회 이주민 영화제에 출품하는 형태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2022년의 동작다다름단의 경우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가 많은 동작구의 특성과 마을탐방 활동을 연계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세계평화 기원활동을 염두에 둔 세계시민 주제학습을 실행하는 형태의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

37) 김학규, 「혼혈아 학교로 출발한 서울영화초, '다문화 시대'를 생각하다」, 『오마이뉴스』, 2018.09.21.(검색일자: 2022년 5월 13일)

38)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모임에서 친정엄마-딸의 관계를 이상적인 멘토, 멘티 관계로 삼기 위한 개념적 접근이 있었으나 한국인-외국인의 관계가 성숙한 인격-미성숙한 인격으로 오인될 수 있어 다문화 인권 활동가 차유정 등의 조언을 통해 '동네 친구 같이 편한 사람,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스스럼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마음 속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친정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4) 세계시민교육-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2022)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작다다름단 결혼 이주민 학습자와 다문화교육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활용한 질적 분석의 방법을 택하였다. 본고는 2022년 동작다다름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동안 진행된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꽃을 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과 등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Bennet(1993)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의 경우에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관점과 민족상대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문화 감수성의 발달 단계를 6단계<sup>39)</sup>로 구분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이를 다시 Merryfield(2001), 조대훈·박민정(2009)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맞게 <표7>과 같이 다문화 감수성 분석 5단계로 재설정하였다.

<표7> 본 연구의 다문화 감수성 분석

다문화 감수성 단계	이주민에 대한 인식	분류 기준
부정	타문화를 (무시된 이방인)의 문화로 무시	타문화를 무시하거나 타 문화를 부정, 공격적으로 무시하는 다문화 혐오 단계

39) DMIS의 경우 부정(Denial), 방어(Defence Reversal), 축소(Minimization)는 자민족 중심주의적(Ethnocentrism) 관점으로 수용(Acceptance),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은 민족상대주의적(Ethnorelativism) 관점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연구자는 이를 다시 부정(무시된 이방인), 방어(겉도는 이방인), 수용(선별적 이웃), 적응(공감하는 친구), 통합(하나의 지구인)으로 단계를 재설정하였다.



↓		
방어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겉도는 주변인)의 문화로만 인식	자신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타문화에 대해서는 방어적 차별적인 행동을 함 자·타 문화 유사성 인식 자문화를 우월하게 인식, 타 문화 경시하는 타인 이해 부족 단계
↓		
수용	자신과 접촉한 타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선별적인 이웃)단계로 인식하기 시작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타 문화적 차이를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
↓		
적용	타문화에 대하여 의도적인 (공감하는 친구) 단계	자신의 지식과 타문화를 의도적으로 연결하여 문화적 정체성 확장시키고 타문화를 의도적으로 공감하는 단계
↓		
통합	자타문화의 구별 없이 (하나의 지구인)으로 다문화 인식 통합 단계	문화적 차이를 실제적으로 인식, 자문화 타문화 구별 없이 유연성 있게 모두 내면화함 다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다문화감수성 완성 단계

연구자는 선행 연구자들의 분석틀에서 장점만을 취합하여 다문화 감수성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타문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가장 낮은 다문화 감수성 단계로 부정 단계로 규정하였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구별 없이 수용하여 공존할 수 있는 상태를 최상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단계인 통한 단계로 규정하여 하나의 지구인으로 다문화를 편견 없이 통합할 수 있는 단계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를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다문화 감수성 증진 분석 준거<sup>40)</sup>

분석 준거	분석 질문
다문화주의 유형	프로그램 내용이 문화 동화주의에 가까운가? 문화 다원주의에 가까운가?
다문화 교육 범주	협회의 다문화 교육 <sup>41)</sup> 인가? 넓은 의미의 다문화 교육인가?
다문화 교육 추진 배경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	예)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가?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첫째, 다문화 감수성 증진 분석의 준거로 다문화주의 유형을 삼은 이유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이 차별배제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작다다름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이와 대비하여 다문화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교육의 범주가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극복에 치중되어 있는지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에까지 폭넓게 다뤄지고 있는지가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다문화 교육 또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 목표가 무

40) 다문화적 태도를 조작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집단에 적용하기 용이한 '간문화적 태도(intercultural attitude)'에 기초하여 Bennet(1993)의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The 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이 개발한 분석 준거의 틀을 참고하였다.

41) 좁은 의미의 다문화 한국어 교육은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상호문화의 존중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다문화 한국어 교육은 인종, 민족, 문화, 언어, 계급, 외모, 성, 사회적 소수자 현상 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교육의 형태로 정의된다. 조대훈, 「인문계 고등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연구』, 제76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9, 59쪽.

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면 다문화 감수성의 민감 정도를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프로그램 수강 이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졌거나 차이를 인정하게 되었다면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분석틀을 가지고 조대훈·박민정(2009)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수업모형을 3단계로 실행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2022년 5월 현재 진행 중인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라는 1년 과정 지역 사회 마을탐방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직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하여 질적 연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중간 과제 형태로 제시된 청소년들의 글쓰기 내용과 동작 다다름단에 참여한 결혼이주민 학습자의 글을 활용하여 어떻게 고등학교 다문화 교육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9> 다문화 감수성 증진 활동 후 글쓰기 분석을 통해 동작다다름단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어떻게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되었는지 알 수 있다.

<표9> <동작다다름단>에 참여한 연구대상 다문화 감수성 분석

순서	경문고 1학년 이○○	동작다다름단 정○○
①	영화 <청년경찰>을 보고 난 후 사당2동 마을탐방에서 만난 조선족(중국동포)에 대한 이야기	2001년 결혼 후 17년이 지나 동작다다름단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
②	영화를 보고난 후 마치 위험한 범죄자처럼 그려지는 조선족에 대해 관심이 생겨 조사해 본 후 200만 명 정도의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재중동포는 중국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동포를 의미함을 알게 됨.	2001년도에는 이러한 기관들이 없어 한국 생활 적응 기간이 꽤 길었고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도 나의 힘든 한국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음. 딸이라곤 하나뿐인 친정엄마는 집으로 온 남편에게 밥을 해주지 않을 만큼 반대했고 중국 사람들은 결혼 후 다 도망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부모님의 편견도 심했음.

순서	경문고 1학년 이○○	동작다다른단 정○○
③	어떻게 중국에 가서 정착하였는지를 소개함. 최초의 조선인이 중국에 몰래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중국 땅에 밭을 들여 농사를 지을 뿐 거주하진 않았죠. 본격적인 이주는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에 흉년이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하여 중국 연변에 난민으로 생활을 하러 감. 재중 동포 이주 역사 첫 번째는 한반도 북부 수해와 가뭄으로 농사를 지으러 간 것 경우임.	그때 만약 다문화센터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센터 상담 선생님께 털어놓고 상담도 받고 같은 처지의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어울려 위로도 받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됨.
④	두 번째 이주 시기는 일제의 한일합방부터 1931년 9.18 사변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농민들이 대거 이주함. 여기에는 독립운동가들도 다수 포함됨.	내가 힘든 세월을 우울증으로 겪어내고 난 뒤 생긴 다문화센터의 출현은 우리 결혼이주민에게는 신세계였다. 모르는 한국어, 요리프로그램, 김치 만들기 프로그램 문화교육, 이중언어 교육, 직업교육 등이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
⑤	세 번째 시기는 1931 9.18사변부터 1945년 광복까지로 가장 재중동포 이주민의 규모가 크며 특히 일제에 의한 강제 이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제는 식량기지, 군사 후방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으로 강제 이주시킴.	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역량강화를 통해 은행 취업,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사법통역관으로 활동하여 기존의 주중 프로그램들 거의 참여 하지 못하여 아쉬움.
⑥	재중동포들의 이주역사를 보면 이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간 것 같음. 아니면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한 경우가 다수임. 게다가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후손도 재중동포인데 이들은 다시 우리나라에 와도 전혀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었음.	2018년 다문화센터 팀장님께서 주말 프로그램으로 다다른단이 꾸려진다고 연락이 옴. 다다른단(함께 다다른다를 의미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두가족봉사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다봉사단, 그리고 경문고등학교 동아리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하나의 목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동질의식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관내 가족들의 '마을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소개를 받음.
⑦	조선족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고 조선족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음. 우리 주변에도 특히 동작구에도 만 이천여 명의 중국동포 분들이 함께 살고 있음.	저도 중국어통역을 제공하여 보람을 느끼는게 좋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활동한다는 예기에 멈췄던 것 또한 사실임. 왜냐하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국 사람임을 몰랐을 때는 일도 잘하고 친절하다고 좋다고 했던 분들이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오픈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 나를 멈췄하게 만들.
⑧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 중국동포 분들을 조선족이라 싸잡아서 부르지 마시고 따뜻한 인사 먼저 전해 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선주민은 선주민끼리, 이주민은 이주민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어울림. 현충원 비석 닦기를 하면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나오면서 선주민들과 고등학생들은 이주 배경에 대해 다시금 상기하고 우리에게 고향이 중국 어디냐고 물으셨고 때마침 나의 고향도 흑룡강성 하얼빈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예기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이들의 사춘기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게됨.

순서	경문고 1학년 이○○	동작다다름단 정○○
		<p>나의 심경에만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새끼에게도 변화가 왔다. 딸아이에게 “너네 엄마는 중국에서 왔잖아”라면서 무시를 받았으나 엄마가 속상해할 까봐 말도 못한 것을 알게 되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픔. 아이는 내 배속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는데. 그날 저는 엄마는 비록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엄마의 할아버지때 중국으로 건너갔고 옛날에는 다 같은 민족이었음을 설명해주었으나 지 아이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늘 조마조마함. 현충원에서 안중근 의사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듣고 비석을 닦으면서 “엄마 정말 할아버지가 그때 중국 갔으니 엄마도 중국에서 태어났을 뿐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이었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편하게 살수 있는건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해서 였구나.”라면서 시골 가면 무덤이 무섭다고 근처에도 가지 않던 딸아이가 두 팔을 걷고 비석들을 쓱쓱쓱 닦음. 나는 많이 뿌듯한 나머지 집에 와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림. 중국에서 태어난 엄마때문에 항상 마음 아픈 딸아이가 이젠 그 과정을 넘어선 것 같아 안도의 눈물이었음. 요즘은 누가 너희 엄마 중국 사람이지 하고 하면 “응. 우리엄마 중국 사람이야. 안중근의사가 돌아가신 하얼빈이 고향이야 너희 엄마 고향은 어디야?” 라고 되묻기도 할정도로 자존감이 향상되어 한시름을 놓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게 되었음.</p>

신지영(2021)<sup>42)</sup>에 따르면 언어는 상대를 전제하는 일이다. 특히 외국인을 연상하며 쓰는 글쓰기는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야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쓰기에 있어 어떤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고정관념을 연상하게 하는지, 어떤 의도성을 지니고 언중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로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동작다다름단에 참여한 청소년과 이주민의 글쓰기를 분석하여 다문화감수성이

42) 신지영, 『언어의 높이뛰기』, 인플루엔셜, 2021, 160쪽.

어떻게 증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청소년의 글쓰기의 경우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재중동포와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악인이거나 심각한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이라는 용어가 재중동포라는 단어로 표현되기까지 동작다다름단 활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차별이나 편견이 내재해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재중동포가 어떤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글쓰기를 통해 알려내고 있다. 단어가 가지는 편견을 없애기 위한 근거로 현충원 마을탐방을 통해 독립운동가들 다수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사실에 주목하여 재중동포 이주의 역사와 디아스포라라는 우리 민족이 가진 특성을 통해 ‘다문화’라는 용어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참여자인 재중동포였던 이주민 참여자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온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조선족’으로만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불편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이 한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마저 차별받고 있음에 마음의 상처가 컸지만 동작다다름단 활동을 통해 선주민 학습자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자녀 또한 엄마의 이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동작다다름단 마을결합형 다문화 교육 활동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선주민, 청소년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이질적 환경에 놓여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공존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의 성장에 이르고 있다. 올해 진행 중인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역시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작다다름단 참여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문화적인 세상을 위해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경험하여 이른바 지구인(세계시민)으로 성장하려는 과정을 지니고 있다.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주말 활동이나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문화 교육이 단편적 1회성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가로막고 있다. 이주민들에게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선주민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내어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문 고등학교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다닐 학교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작다다름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기에 이르렀다.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연계한 간문화적 글쓰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타인의 삶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지구인이 될 수 있었다.

경문고등학교 마을결합형 다문화 교육은 학교 안 동아리 활동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가 참여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탐구와 마을체험에서 얻는 배움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우는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지역에서 만나가는 과정 중심 다문화교육을 삶의 공간이 마을 속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했는지에 대한 인식의 결과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대단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동안 모임이 지속되고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가시적이고 선명하한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드러내기 어려웠지만 동화주의에 가까운 기존의 다문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 안의 다문화 교육이 교과서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점도 의의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영역에서 확장하여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노동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연계하고 교육방법론에 있어서도 토론 활동, 마을 탐극 등 다



양한 형태의 수업모형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특정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다인종·다문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방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문화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김용련, 『마을교육 공동체-생태적 의미와 실천』, 살림터, 2019.  
신지영, 『언어의 높이뛰기』, 인플루엔셜, 2021  
이용운 외, 『서울의 마을교육』, 살림터, 2020.  
이광석, 『다문화행정론』, 조명문화사, 2014.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7.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2014.  
\_\_\_\_\_, 『차별의 언어』,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9.

### □ 참고논문

- 김명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4권, 2012, 1-28쪽.  
김미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지선,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참여에의한 자기효능감 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김태정, 「마을교육공동체는 한국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9, 31-42쪽.  
김혜숙,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011, 51-89쪽.  
노상우·김관수, 「생태학적 위기와 현대교육의 과제」, 『教育論叢』, 제23권, 2003, 137-155쪽.  
박민정, 「사회과 교실의 다문화교육 수업모형 개발 연구 :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대한 시민교육적 접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박범철, 「다문화 감수성에 기반을 둔간 문화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실제 - 2015년 경문고 따봉(따뜻한 봉사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어문학회』, 제66권(제8호), 국제어문학회, 2015, 399-436쪽  
\_\_\_\_\_, 「다문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박설희, 「트위터를 통한 '다중(Multitude) 형성과 문화적 실천에 대한 연구:네그리와 하트의 주체구성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신수연, 『한국의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5-34쪽.  
신종진·신효진,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국내 마을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제1권, 2003, 39-48쪽.  
장인실·김명희, 「Bennett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50권, 2011, 123-146쪽.  
조대훈, 「고등학교 사회과 다문화 수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간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연구』, 제52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1, 43-70쪽  
\_\_\_\_\_, 「인문계 고등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연구』, 제76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9, 53-72쪽.  
조윤정, 『경기미래교육 실천전략 수립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17-21쪽.

주영순,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사례 연구 - 민주시민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제6권, 2021, 45-72쪽.  
 허종렬, 김상돈, 「청소년 시민 참여와 법교육」, 『시민청소년학연구』, 제2권, 2011, 5-30쪽.  
 황여정,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태와 방향」,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8, 111-139쪽.

□ 기타

박범철,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 마을강사 인식변화 사례 연구」, 『서울교 육연구년 최종 보고서』,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2014 다문화교육 중등교원 직무연수」 자료집, 2014.  
 김상용, 「“함께 공부 못해” 따돌림에... 다문화 고교생 20% 학업 포기」, 『서울경제신문』, 2019.01.13.(검색일자: 2022년 5월 14일)  
 김학규, 「혼혈아 학교로 출발한 서울영화초, '다문화 시대'를 생각하다」, 『오마이뉴스』, 2018.09.21.(검색일자: 2022년 5월 13일)  
 \_\_\_\_\_, 「그들은 왜 '지하여장군'만 못살게 굴었을까」, 『오마이뉴스』, 2019.03.29.(검색일자: 2022년 5월 14일)  
 조찬호, 「가족 공감대 형성, 바른 인성 기르고 세상 보는 눈 키워」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동아 리, 어른 아님 동료로 참여」, 『조선일보』, 2015.11.01.(검색일자: 2022년 5월 14일)  
 명승일, 「이주여성 출신 이자스민 의원 “‘다문화’라는 단어 사라지길 바란다」, 『천지일보』, 2015.11.01.(검색일자: 2022년 5월 14일).  
 [교육프로그램 안내] <https://multiculture.sen.go.kr/>, (검색일자: 2022년 05월19일)

## ABSTRACT

###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Community-linked High 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operation of Dongjak  
Dardarmdan at Kyungmoon High School in Seoul-

Park, Bumchul<sup>24)</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from 2018 to May 2022.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perception gained by migrant participants, villagers, and teenagers who settled in Dongjak-gu together during the village tour led to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of existing multicultural educatio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schools was proposed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understanding education, Korean language culture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t was to grasp the attitude of having global citizenship and empathizing and respecting each other with the heterogeneous social identity of natives and migrants, teenagers and women who are subject to multicultural

---

24) Kyungmoon High School

education.

As a suggestion, participants of Dongjak Dada Group proposed how to meet the villagers and make social voices with the global municipal democracy system called the Youth Project with Flowers through village activities in 2022.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the lack of significant linkage activiti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methodology derived through strict verification could not be appli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re appropriate given that the "Project with Flowers," which introduced many social implications, is also an ongoing program in 2022. Nevertheless, it is meaningful in that migrants, native residents, and adolescents can try a new typ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member of a village association community beyond the existing school or institution-centered multicultural education category.

Keywo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mmunity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Migrants and Native Americans, Jiguin

## 박 범 철

전 자 우 편 : parkbch@hanmail.net

논문 접수일 : 05월 30일

심사 완료일 : 06월 20일

게재 확정일 : 06월 27일



# 순수예술 팬덤 확장 방안 연구

## - 대중예술 팬덤 현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이주영<sup>1)</sup>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대중예술 팬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순수예술의 팬덤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아미(A.R.M.Y.)’와 임영웅의 ‘영웅시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예술과 팬덤의 문화지형성 고찰을 통해 4가지 특성을 추출했다. 문화사회성, 상호교환성, 스타성, 참여성 등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과 구별(distinction), 생산성(productivity)과 참여(participation), 자본 축적(capital accumulation)이란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해 대중예술 팬덤 양상을 진단한 결과,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아미’의 가장 큰 특징은 팬덤이 BTS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직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의 강점을 살린 초연결성, 자발적 의지의 발현으로 인한 높은 충성도,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장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영웅의 경우는 ‘애미’로 지칭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

---

1)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닌 ‘영웅시대’들의 자발적 응집력, 조직적인 추진력, 스타의 철학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실천하는 면모 등이다.

대중예술 팬덤 사례 시사점에 기반해 순수예술의 팬덤 확장 방안 세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휴먼 플랫폼(human platform) 구축, 순수예술 특성에 기반한 대중성 발현, 스타 예술가 발굴 및 육성 강화 등이다.

예술의 미학적 정점에 있는 순수예술이 제시한 확장 방안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되고, 팬덤과의 유기적 상생관계 설정을 통해 문화영토 지경이 넓혀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팬덤, 순수예술, 대중예술, BTS, 영웅시대, 문화영토



##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순수예술 팬덤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중예술 팬덤 현상에서 시사점 도출을 그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예술은 분야와 장르를 불문하고 대중과의 교감이 긴요하다. 쌍방향 소통 기제가 원활히 작동될 때 소기의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 무대, 배우, 관객이라는 공연의 3요소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연 현장에서 관객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지는 불문가지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 상황을 겪으면서 무대예술이 지닌 현장성, 몰입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상당했다. 보완재 역할은 가능하지만 대체재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팬(fan)들은 자신이 기다리는 예술가를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누구보다 크리라 본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예술의 속성 측면에서 볼 때 ‘팬덤(fandom)’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차적 차원에서 예술가를 좋아하고, 그 분야에 애정을 갖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 지경을 넓히는 동인이자 예술 영토 확장을 추동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한 단계 더 나가자면 문화영토 확장을 위한 ‘휴먼 플랫폼(human platform)’이라 볼 수 있다.

홍일식(1983)에서 태두된 ‘문화영토’는 ‘이념적 영토’와 ‘시장적 영토’를 넘어선 개념으로 인류의 공동 파멸을 예방하고,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sup>2)</sup> 앞서 언급한 휴먼성, 소프

---

2)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2019, 100-103쪽.

트웨어의 가치와 맥을 같이한다. 인류애에 기반한 친애, 화합, 평화, 복지를 지향하는 개념인 문화영토는 문화를 토대로 한 민족 생활 공간의 일체다.<sup>3)</sup> 이 개념이 시사하는 바는 예술과의 조우다.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지고지순한 창조 활동이요, 그 결과물이 작품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화영토의 경계를 넘나들며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자 도달점이 예술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초예술인 순수예술은 미(美)를 창조하는 전초기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순수예술이 발전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곧 문화영토의 생성과 진화를 도모하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연구자는 예술, 예술 활동에서 중요한 현상이자 자양분이 되는 팬덤에 주목했다.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저에 있는 철학성까지 찾아봄으로써 순수예술 지경 확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방법론으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중예술 팬덤 양상을 진단하고,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둔다. 주된 대상은 방탄소년단(BTS) 팬덤명인 ‘아미(A.R.M.Y.)’와 미스터트롯 가수 임영웅의 ‘영웅시대’이다. 대중음악의 팬덤을 고찰해 순수예술(무용, 국악, 연극, 오페라, 클래식 등) 팬덤 확장을 위한 방안 모색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팬덤을 주요 키워드로 한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송시형(2021)<sup>4)</sup>은 K-POP의 문화산업적 성장을 견인한 팬덤 현상을 분석했다. 특히 BTS 사례를 통해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한 의의가 있다.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 한류의 확산과 지속 가

3) 홍일식,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 제2권, 1985, 108쪽., 김솔,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공토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2021, 44쪽.

4) 송시형, 「K-Culture 팬덤과 한류의 문화사회학 : BTS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제5권(제4호), 한국사회적질연구학회, 2021, 27-43쪽.

능성을 높인 것에 주목했다. 여러 집단과 세대 간의 갈등 완화에 역할을 했다는 것도 연구에서 밝혔다. 이는 문화영토론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여광(2019)<sup>5)</sup>은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덤 형성 과정을 공급자와 미디어 채널, 그리고 수용자별로 나누어 분석해 인기 요인을 추출했다. 이는 K-POP 산업의 개별 주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원(2021)<sup>6)</sup>은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와 중국, 미국, 한국인 팬들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스타와 팬이 소셜미디어의 사회연결성을 토대로 글로벌 팬덤 공동체를 형성해내는 양상을 탐색했다. 스타와 팬의 상호 연결성의 중요성을 포착한 의의를 지닌다.

김영주(2021)<sup>7)</sup>는 논문에서 판소리 장르성을 갖춘 〈이날치 밴드 수궁가〉의 참신한 시도는 현대 대중의 음악취향과 잘 맞았음을 언급했다. 발달된 미디어를 매개로 취향공동체를 형성시켰음을 밝혔다. 특히 판소리 팬덤이 형성되게 되면서 팬을 통한 차별화된 미학적 향유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전통예술의 팬덤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가(2018)<sup>8)</sup>는 학위논문에서 뮤지컬산업에서 스타 마케팅 성공요인을 분석했다. 팬덤과 스타 마케팅의 관계를 추적해 뮤지컬시

---

5) 윤여광,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제13권(제3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9, 13-25쪽.

6) 이재원, 「소셜 미디어 사회연결성의 팬덤 형성 공동체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방탄소년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제7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1-12쪽.

7) 김영주, 「이날치밴드 수궁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예술연구』, 제33호, 한국예술연구소, 2021, 235-255쪽.

8) 진가, 「뮤지컬산업에서 스타 마케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87쪽.

장에서 아이돌가수 또는 한류 스타의 진출 성공 요인을 팬덤의 힘 등으로 규정했다. 공연에서 스타, 스타성이 왜 중요한지와 팬덤과의 연결성을 고찰한 의의가 있다.

김주희(2014)<sup>9)</sup>는 ‘댄싱 9’을 통해 형성된 팬덤을 존 피스크(John Fiske)가 제시한 팬덤의 특징을 통해 분석했다. ‘댄싱 9’의 팬덤 활동을 분석해 보았을 때 무용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의 활동은 아직 사회적 인식 체계를 바꾸는 집단적 행동으로 변모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공연 관람 형태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무용수를 서포트하는 방식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볼 때 예술가와 팬덤의 상호성은 상당함을 감지할 수 있다.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팬덤 현상이 일어났음을 진단할 수 있었고, 순수예술과의 차이 또한 확인이 가능했다. 이러한 기반하에 본고에서 논의한 순수예술을 대상으로 한 팬덤 연구는 차별성을 획득했다. 관련 연구를 통해 순수예술의 가치 제고, 무엇보다 팬덤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 2. 예술과 팬덤의 문화지형성 고찰

팬덤이 예술과 예술가를 추동하는 요인, 예술이 팬덤을 형성, 구축하는 요인들은 어느 하나에 국한에 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지경을 넓고 깊게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예술

---

9) 김주희,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의 팬덤(fandom) 현상 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72권(제6호), 대한무용학회, 2014, 63-74쪽.

과 팬덤의 상호성에 기인해 구현되는 특질을 문화지형성이라 전제하고자 한다. 네 가지 특성을 아래에서 논하고자 한다.

## 1) 문화사회성

보편적 측면에서 문화사회성은 문화적 특질에 기반해 사회성이 표출된다. 여기에서는 문화사회학적 접근에서 팬덤을 바라보는 두 가지를 인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확인하고자 한다.<sup>10)</sup> 첫째, 하위문화로서의 팬덤이다. 팬덤은 취향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출발은 하위문화에서 비롯된다. 하위문화론은 마르크시즘 영향을 받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해 대중문화를 대중생산의 문화로 설명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작하는 도구로 인식한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합의를 이루게 되면 헤게모니(hegemony)를 형성한다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하위문화론을 정립한 시카고학파 등 다양한다. 이들은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변주, 주류문화나 지배계층과 차이를 둔 하위문화의 가치에 주목했다.

둘째, 인정투쟁으로서의 팬덤이다. 소통 욕구를 지닌 공동체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위해 투쟁을 거듭한다. 공동체의 연대감 충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팬덤 커뮤니티이다. 이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투쟁과 인정의 욕망이 점철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일한 취향을 가진 자들은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상승시킨다. ‘연대감’은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팬덤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요소 중 하나다.

---

10) 송시형, 앞의 논문, 29-31쪽.

## 2) 상호교환성

상호교환성을 뒷받침하는 힘은 연대와 교류, 감정과 정서의 교환이다. 이는 예술가와 팬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팬덤의 구성 인자인 구성원 내부에서 배태되고, 형성·발전되는 모습도 존재한다.

콘텐츠는 연결성에 기반해 상호교환되는 특질을 지닌다. 이 때문에 매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요구된다. 생산자와 수용자가 지향점이 같다면 효과는 배가될 수밖에 없다. 팬덤 또한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문화 속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국가와 지역을 뛰어 넘는 것은 영토적 경계를 훌쩍 뛰어 넘는 문화 확장의 일등공신이다. 메타버스(Metaverse) 시대를 관통해 견인할 수 있는 속성이기도 하다.

## 3) 스타성

예술의 특질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일(only)’과 ‘최고(best)’이다. 이러한 연유로 문화예술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동일 분야와 장르에서도 내부 경쟁이 상당한 이유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술가에게는 스타 지향성이라는 측면이 존재함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결국 스타성은 팬덤을 이루게 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예술 경영적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문화상품성이다. 문화콘텐츠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스타성은 팬덤을 견

인하는 힘이자 지속성을 담보하는 요소이다. 브랜딩(branding)이 필요한 이유다. 팬덤 현상 속에서 팬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브랜딩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나날이 이에 대한 가속도는 높아지고 있다.

#### 4) 참여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성은 팬덤의 정체성을 담지한 요소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 첫째, 자발성이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를 이루게 한다. 자발성은 생산성을 높인다. 지속성을 이루게 하는 주요 인자이기도 하다. 둘째, 주체성이다. 주체 의식은 주인 의식이다. 팬이 스타와 동일한 감정, 동일한 행동을 보이려는 심리적 기제 또한 여기에 수용되어 있다. 셋째, 실천성이다.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실천성은 팬덤이 보여주는 다양한 양태들로 스타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유발될 수 있다.

문화영토의 가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술과 팬덤의 상호 접점은 적지 않다. 추종이 아니라 동행이다. 같은 길을 걷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어깨를 내다볼 수 있는 인격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팬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 예술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가(스타)는 그 중심에 있다. 네 가지 요소는 팬덤 상황에서 상대적 두드러짐이 있는 개별성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 3. 대중예술 팬덤 사례 분석을 통한 순수예술 팬덤 확장 방안

#### 1) 팬덤의 특징

John Fiske는 1989년에 적극적인 대중문화 수용자층과 평범한 수용자층을 구분하기 위해 ‘팬덤’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내린다. Fisk & Coney(1982년)는 팬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팬덤은 차별(discrimination)과 구별(distinction)의 특성을 갖는다. 팬들은 스타 선택을 통해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체험에 대한 이미지를 구별하는 동시에 지배문화가 가진 미학적 차별 기제로도 이를 활용한다.

둘째, 팬덤은 생산성(productivity)과 참여(participation)의 특성을 지닌다. 팬들은 문화산업의 생산물을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대중문화를 생산한다. 생산성은 기호적 생산성, 언어·행위적 생산성, 텍스트적 생산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셋째, 팬덤은 자본 축적(capital accumulation)의 특성도 있다. 여기서 자본이란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을 뜻한다. 팬들은 스타와 관련된 문화상품을 수집하고 소유함으로써 그들만의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팬들은 이러한 문화 자본을 자신들의 집단 내에서 행사하며, 팬덤 대상을 공유하지 않은 외부와의 차별을 통해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팬들은 미디어와 문화산업이 전달하는 스타에 관한 이미지나 정보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수동적 소비자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변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



적인 행태를 보인다.<sup>11)</sup>

팬덤이 지닌 대표적인 속성 세 가지에서도 알 수 있듯,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구별짓기를 이룬다. 정체성 확립의 의지 표명이다. 이를 통해 문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자본’이란 문화 자체가 화폐나 재산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교환 가치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개념이다. 문화의 힘이 갈수록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다.

## 2) 대중예술 팬덤 사례 분석

### (1) 방탄소년단(BTS)의 ‘아미(A.R.M.Y.)’

한류를 넘어 신한류를 이끄는 BTS의 경우는 그간 팬덤 관련해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어떠한 특징과 의미가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한류 4.0 시대의 주인공 BTS는 7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다. 빌보드 차트에서 총 9주(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글로벌 스타다. BTS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연구 자료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BTS DNA’로 압축된다.

‘Beyond’는 탈경계를 지향하는 콘텐츠의 힘을 의미한다.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다. 자기 이야기를 담아내되 EDM, 라틴팝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해 음악의 범주를 넓혀 간다. ‘Trans media’는 음악을 중심으로 영상, 캐릭터, 캠페인,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드는 것이다. 방탄소년단 콘텐츠 서사의 매력성은

---

11) 윤여광, 앞의 논문, 17쪽.

‘Storytelling’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Direct’ 측면에서는 방탄소년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다.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트위터와 기획사가 관리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구촌 수용자들과 접점을 만들고 있는 ‘Network’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군대를 뜻하는 팬클럽 ‘아미(A.R.M.Y.)’는 그 이름처럼 강력하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한 것은 팬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공식 팬카페에서 투표를 통해 2013년 7월 9일, 공식 팬클럽 이름을 ‘A.R.M.Y.’로 결정하고, 2014년 3월 29일 창단식을 가진 뒤 정식 팬클럽을 결성했다. 현재 각국에서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아미가 활동 중이다. 방탄소년단이 청춘과 성장의 이야기를 노래에 녹여내는 만큼 아미들도 10대와 20대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속에 국적도 더 다양해지고, 30~40대 팬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동이나 동남아, 동유럽 등 미국, 일본, 서유럽권이 아닌 지역의 아미들도 있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방탄소년단을 보고 팬이 된 경우가 많다. 보통 K-POP 아이돌의 팬클럽 회원 수는 국적으로 보자면,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일본, 그 뒤로 여러 동아시아 국가가 나열되는게 일반적이지만 방탄소년단은 유일하게 미국 팬덤이 한국 팬덤과 견줄 정도로 크다.

방탄소년단 팬덤의 가장 큰 특징은 팬덤이 우상(BTS)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직화한다는 점이다. 방탄소년단 팬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팬찬트’(fan chant·아이돌 팬들이 사전 학습으로 만들어

낸 집단 응원 구호)와 ‘아미 봄(A.R.M.Y. BOMB)’ 그리고 합창 등으로 우상에 대해 집단의례를 한다. 둘째, 음원 스트리밍(streaming) 구매 등 우상을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셋째, 군대식으로 위계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조직화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 이런 아미의 자발적 충성도를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세계관(Universe)’이 만들어졌다. 팬들은 또한 한국어로 된 노랫말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노래를 직접 번역해 자신의 SNS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아미 파워는 24시간 접속된 초연결(hyper connectivity) 미디어로부터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 속력은 시간과 공간과 언어의 장벽에 막혀 지역적, 지역적 커뮤니티 역할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무한 접점을 만들어 내는 강점이 있다.<sup>12)</sup>

온라인의 강점을 살린 초연결성, 자발적 의지의 발현으로 인한 높은 충성도,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보인다.



[그림 1] BTS, ARMY 로고<sup>13)</sup>

12) 윤여광, 앞의 논문, 14-22쪽.

13) [AI/PSD]방탄소년단&아미로고], <https://m.blog.naver.com/btunefit/222425879325>, (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 (2) 임영웅의 ‘영웅시대’

임영웅은 트로트 열풍에 따른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수상하며 이름을 크게 알렸다.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을 만나고, 여러 음악·음원 차트에서 선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의 진(眞) 수상자로서 뿐 아니라 그가 지닌 감성, 미담 등도 그에 대한 팬덤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영웅 공식 팬카페를 보면, 소통할 수 있는 코너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비롯해 유튜브 등을 통해 콘텐츠 제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공지 코너, 영상방, 응원방 운영 등을 통해 소통하고, 카톡방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임영웅의 경우를 보더라도 팬덤에서 요구되는 지점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양상이 대부분 수용됨을 알 수 있다. 팬덤은 ‘팬의 집합적 팬’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 집단이 만들어낸 특유의 규범이나 행동양식, 지위나 신분, 팬 문화 현상과 관련된 관습, 제도 따위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팬 사회’도 지칭한다. 스타가 대중문화의 핵심적인 제도라면 또 하나의 팬이며, 스타는 팬이라는 집단을 통해 존재기반이 강화됨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스타가 팬에게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팬은 일방적으로 동경만을 하는 수동적인 하위문화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스타의 존재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팬과 스타 간은 공생관계로 봄이 합당하다. 둘째, 팬은 자발적으로 생성된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서로

의 취향이 비슷한 팬이 모여 팬덤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은 핵심사항 중 하나이다. 이러한 팬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면서 자신들만의 조직, 친밀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 발전시킨다.

팬클럽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팬클럽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문화상품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다. 마케팅의 핵심 타겟이 된다. 마케팅 소구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주어도 관련 상품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소비군을 이루고 있다. 충성 고객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화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팬들은 스타와 관련한 잡지,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과 같은 관련 파생상품을 팔아주는 부가적인 시장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팬문화는 문화산업,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의 상업적 이익과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존 피스크(John Fiske)는 팬덤에 대해 “팬들은 자체의 생산 및 분배 체계를 가진 팬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산업 영역 밖에서, 여러 특성을 공유하는 ‘그림자 문화경제(shadow cultural economy)’라고 부를 만한 것을 형성시킨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14)</sup>

임영웅의 팬덤명인 ‘영웅시대’의 또 다른 이름은 ‘애미’다. 공교롭게도 BTS의 팬덤명인 ‘아미’와 유사한 발음이다. 하지만 ‘애미’는 ‘엄마’를 뜻한다. 팬 층은 중장년층이 많다. 엄마의 마음으로 살피고, 보호하고, 함께한다는 다의성을 지닌다. 현재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팬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금방 감지할 수 있었다.

영웅시대 회원인 김경진<sup>15)</sup>에 따르면,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읜

14) 김주희, 앞의 논문, 16-17쪽.

15) 김경진(최현출원 이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과의 인터뷰, 2022년 5월 12일.

임영웅은 무명 때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고 한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을 보니 좋다고 할 정도로 순수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눔을 실천하고, 진솔한 면이 그와 함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노래에 담긴 감성은 음악성을 넘어 이 시대에 위로와 공감을 주는 영혼 치유의 손길이라 볼 수 있다. 애미를 자처하는 영웅시대 팬들은 ‘내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누가 좋겠느냐’며, 그를 지키는 용사가 된다. 마음을 울리는 예술가, 임영웅을 위해 팬들은 매일 매일 영웅시대를 살아가고,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임영웅의 팬덤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시대들의 자발적 응집력, 조직적인 추진력, 스타의 철학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문화실천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림 2] '영웅시대' 콘서트장 앞 장면<sup>16)</sup>

16) [임영웅 팬클럽 우리들은 애미], <https://blog.naver.com/oklyj203/222071377636>, (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 3) 순수예술 팬덤 확장 방안

기초예술인 순수예술은 예술성 성취와 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된다. 예술작품을 예술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술경영(Art Management)의 역할임을 주지하듯 말이다.

앞서 적시된 방탄소년단(BTS)의 ‘아미(A.R.M.Y.)’와 임영웅의 ‘영웅시대’ 사례를 통해 볼 때 순수예술의 팬덤 확장은 시대적 요청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 제시를 다음에서 하고자 한다.

#### (1) 휴먼 플랫폼(human platform) 구축

예술은 ‘휴먼(human)’, ‘휴먼성’을 추구한다. 특히 순수예술은 여기에 더 근간을 둔다. 팬덤의 기초는 ‘휴먼 플랫폼(human platform)’ 구축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애와 공생이란 명제를 품에 안고, 현장에서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팬덤은 결국 예술을 통한, 예술을 향한 인류애의 미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영토 확장을 위한 순수예술 팬덤의 소명이기도 하다.

#### (2) 순수예술 특성에 기반한 대중성 발현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은 공통분모도 있지만 생래상 차이가 존재한다. 그 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팬덤이 형성되어야

다. 자발성, 참여성이 중요한 인자인 팬덤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이 지니는 풍요로운 미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무대 현장에서 예혼을 불태우는 예술가들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탕하에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요즘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이다.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이란 부제를 달고 인기를 누린 ‘풍류대장’의 예를 보더라도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국악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매체의 역할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당연히 이를 통해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팬덤의 기운이 무르익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결국 이를 통해 순수예술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때는 팬들의 손길과 발길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3] ‘풍류대장’ 경연 장면<sup>17)</sup>

### (3) 스타 예술가 발굴 및 육성 강화

17) [[JTBC 예능] 풍류대장 1라운드 : 해음, 오단해, VSTAR(브이스타) 김미성], <https://m.blog.naver.com/dullice912/222543204873>, (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상호성이다. 스타 예술가 없이 팬덤이 형성되지 않는다. 문화영토 지경 또한 확장되지 않는다.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단장 재임 시절, 발레 스타 4인방이 화려한 무대를 수놓으며 팬층을 두텁게 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는 예술단체, 예술가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국공립 무용단체의 경우, 단원 중 안무가를 육성해 스타성을 발휘시키려는 노력도 현장에서 진행중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수요와 공급은 예술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각 장르별 스타 예술가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

#### 4. 결론

이 논문은 대중예술 팬덤 사례를 진단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순수예술의 팬덤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아미(A.R.M.Y.)’와 임영웅의 ‘영웅시대’가 연구대상이다.

우선 예술과 팬덤의 문화지형성 고찰을 통해 4가지 특성을 추출했다. 문화사회성, 상호교환성, 스타성, 참여성 등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과 구별(distinction), 생산성(productivity)과 참여(participation), 자본 축적(capital accumulation)이란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해 대중예술 팬덤을 분석한 결과,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아미’의 가장 큰 특징은 팬덤이 BTS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직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의 강점을 살린 초연결성, 자발적 의지의 발현으로 인한 높은 충성도,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장점도 들 수 있다. 임영웅의 경우는 ‘애미’로 지칭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시대’들의 자발적 응집력, 조직적인 추진력, 스타의 철학을 존중해 함께 실천하는 면모를 보인다.

대중예술 팬덤 사례 시사점에 기반해 순수예술의 팬덤 확장 방안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휴먼 플랫폼 구축, 순수예술 특성에 기반한 대중성 발현, 스타 예술가 발굴 및 육성 강화 등이다.

예술의 미학적 정점에 있는 순수예술이 앞서 언급한 제언들로 현장 실현이 가능해지고, 팬덤과의 상생관계를 통해 문화영토가 확장 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 참고논문

- 김 솔,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공토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영토 연구』, 제2권(제1호), 2021, 44쪽.
- 김영주, 「이날치밴드 수궁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예술연구』, 제33호, 한국예술연구소, 2021, 235-255 쪽.
- 김정우, 「오늘의 관점에서 본 문화영토론의 실현 방안 -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창간호, 2019, 100-103쪽.
- 김주희,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의 팬덤(fandom) 현상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2권(제6호), 대한무용학회, 2014, 63-74쪽.
- 송시형, 「K-Culture 팬덤과 한류의 문화사회학 : BTS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제5권(제4호), 한국사회적질연구학회, 2021, 27-43쪽.
- 윤여광,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3권(제3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9, 13-25쪽.
- 이재원, 「소셜 미디어 사회연결성의 팬덤 형성 공동체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방탄소년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 권(제7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1-12쪽.
- 진 가, 「뮤지컬산업에서 스타 마케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87쪽.
- 홍일식,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 제2권, 1985, 108쪽.

### □ 기타자료

- 김경진(최현춘원 이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과의 인터뷰, 2022년 5월 12일. [임영웅 팬클럽 우리들은 애미], <https://blog.naver.com/oklyj203/222071377636>, (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 [[AI/PSD] 방탄소년단&아미 로고], <https://m.blog.naver.com/btunefit/222425879325>, (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 [[JTBC 예능] 풍류대장 1라운드 : 해음, 오단체, VSTAR(브이스타) 김미성], <https://m.blog.naver.com/dullice912/222543204873>, (검색일자: 2022년 4월 28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Fandom of Pure Art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popular art fandom phenomenon -

Lee, Joo-young<sup>15)</su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ses of popular art fandom and derive implications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fandom of pure art. BTS's 'A.R.M.Y.' and Lim Young-woong's 'Hero Generation', which are active in the field of popular art, were studied. First, four characteristics were extracted through a review of the cultural topography of art and fandom. It is cultural sociality, interchangeability, stariness, and participation. Fandom has been found to be basically characterized by discrimination and distinction, productivity and particip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diagnosing the trend of popular art fandom, the biggest feature of BTS is that fandom forms and organizes BTS' identity.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advantages of hyperconnectivity using online strengths, high loyalty due to the expression of voluntary will, and organized communication. Lim Young-woong's case includes the voluntary cohesion of the 'Hero Generation' with soft

---

15) Hanyang University

charisma, organizational drive, and the aspect of respecting and practicing the philosophy of star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popular art fandom, I would like to present three ways to expand the fandom of pure art as follows. It includes establishing a human platform, expressing popularity based on pure art characteristics, and strengthening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star artists.

It is hoped that pure art, which is at the apex of art, will be implemented in the field through the expansion plan proposed in the paper, and that the cultural territory will be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win-win relations with fandom.

Key words : fandom, pure art, popular art, BTS, Hero Generation,  
cultural territory

## 이 주 영

전 자 우 편 : jy034@hotmail.com

논문 접수일 : 05월 31일

심사 완료일 : 06월 20일

게재 확정일 : 06월 27일



#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교육 방안 연구

## - 한국어표준교육과정<sup>1)</sup>을 중심으로 -

정원기<sup>2)</sup>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 교육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를 교육할 때 다양한 자료를 제재로 활용하여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논문은 기관마다 다른 문화 항목 제시와 그에 따른 문화 교육을 통일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국가 차원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등급별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에 따라 ‘이해-적용-생산-평가’의 4가지 단계를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단계 ‘이해-적용-생산-평가’의 단계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수행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고 역행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문화 항목에 대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쓴 논문이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등급별 목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문화교육목표, 단계별 문화교육

---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20.

2)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 1. 서론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수요가 늘고 있고 그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단순히 언어의 원리나 문법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제도 등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학습자들도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한국어를 통해 좀 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학습자와 재외 동포에게 한국적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의 학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한국 문화의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수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어 온 연구 중 한국어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외국인 학습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 목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와 한국어교육용 통합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읽고, 듣기, 쓰고, 말하는 한국어교육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교재 및 한국어교육용 통합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들은 설명적 텍스트로서 정보 전달과 사실을 담고 있



다. 하지만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해당 단원의 주제 및 기능과 맞는 않는 것들도 있고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의 명확한 범주가 없이 범주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재는 중요한 교육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재에 문화 항목이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각 교재마다 등급별 차이가 나는 문화 항목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화 교육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그냥 읽기 자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를 제시할 때 등급별로 범주화 없이 제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등급별 한국어교육 목표는 명확하지만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등급별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등급별 목표

### 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10년에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과 연구 영역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교육 내용의 선정과 등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조 기준의 역할을 해 왔다. 한국어 표

준 교육과정은 2010년에 개발되어 2018년까지 연구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더불어 국가 차원 한국어교육 교육과정에 기준이 되고 있는 연구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포괄적인 성격과 목표의 설정, 그에 따른 성취기준과 교육 내용,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방향성까지를 모두 아울렀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특정한 지역과 학습자를 한정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의 특수성에 맞는 상세한 개별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층위의 언어지식과 언어 경험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별 언어들 간의 연관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관점, 즉 개별 화자의 언어목록이 형성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중언어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중언어주의는 한 인간의 언어적 경험이 가정에서 시작하여 그 사회의 언어를 거쳐 다른 국가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어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개인의

---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20, 1-2쪽.

언어목록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언어목록을 다양화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외국어, 제2언어, 계승어 등 한국어의 다양한 지위를 고려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자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란, 한국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상호 간의 의미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는 한국어를 매개로 타인을 비롯한 자신의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조정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자 문화의 결정체이므로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사고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한국인의 사고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또 학습자 자신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추구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면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한국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한국어를 도구로 하여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

며,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궁극적으로는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갖춘 세계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의의와 어떠한 내용으로 국가 차원 한국어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밝히고 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동시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어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목표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다양한 층위의 한국어 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 위의 글, 3쪽.

- 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라. 한국어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마.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와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

한국어교육은 대상 학습자가 외국인 학습자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그 등급이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급별 한국어 교육 목표는 2018년까지 연구가 진행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국가차원 등급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고 이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등급별 총괄 목표에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밝히고 등급별 총괄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로 하위의 언어기술별 목표와 성취기준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학습자가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참여 가능한 의사소통 맥락을 중심으로 총괄목표를 기술하였고,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소통 기능을 제시하였다. 특히, 목표어인 한국어로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능의 예와 함께 기술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총괄목표는 특정 언어기술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므로 의사소통 전반의 수행 능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내용, 기능, 상황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으며, 내용 요소 가운데 기술과 전략, 텍스트, 언어지식과 같은 미시적 범주의 요소는 하위의 성취기준에 포함하여 기술함으로써 총괄목표가 교육목표로서의 명료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총괄목표는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숙달도에 따른 등급은 사용의 편리성과 적용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6등급 체계를 따랐다.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6급의 경우, 실제로는 6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6급과 그 이상의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총괄목표를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 한국어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표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

단계	등급	총괄목표 내용
초급	1급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인사나 소개,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급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정보에 관해 묻고 답하기, 허락과 요청, 메시지의 이해나 교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중급	3급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권유나 조언, 간단한 설명에 대한 이해나 표현, 정보 교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급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추상적 주제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동의와 반대, 지시와 보고, 생각이나 의도의 이해나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고급	5급	사회 전반에 대한 소재와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이거나 일부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업무 보고, 협의, 체계적인 정보 전달,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6급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글이나 학술적인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설득이나 권고,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위에 제시된 등급별 총괄 목표 말고도 한국어의 언어 기능별 등급별 총괄목표도 제시하고 있었다. 언어 기능별 총괄목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에 대한 총

괄 목표와 성취기준을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3. 한국어표준교육과정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교육 목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등급별 총괄 목표와 등급에 따른 언어 기능별 총괄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등급별 총괄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목표를 살펴보고 하겠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해 Patrick R. Moran은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것을 적용하면서, 또 어떤 관계의 힘, 즉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을 통해 그 문화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학습자들이 교실 문화 학습모형으로부터 삶의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때, 문화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다.<sup>5)</sup> 또한 Seelye(1984)<sup>6)</sup>는 서로 다른 문화간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틀을 제시하면서 7가지의 문화 교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5) Patrick R. Moran, 정동빈 옮김, 『Teaching Culture, 문화 교육』, 경문사, 2004, 21쪽.

6) Seelye, H. Ned,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II: National Textbook Company. 1984, p. 301.



• Seelye(1984)의 문화 교수 목표

1.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2. 나이나 성, 사회 계급,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 변수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3. 목표 문화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좀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4. 목표어의 단어나 구절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함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
5.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표 문화에 관해 얻게 된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6. 학생들이 목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7. 목표 문화에 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문화 사람들에게로의 감정 이입을 촉진하는 것.

위에 제시한 Seelye(1984)의 문화 교수의 목표 7가지를 다시 풀어서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 문화 이외의 문화적 행동을 이상하

거나 열등한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지도함을 목표로 한다.

2. 나이나 성, 사회 계급,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 변수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 나이, 성별, 사회계층 등의 사회적 변인이 사람들의 화법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3. 목표 문화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좀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 목표 원어민들이 흔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습적으로 행동하는 가를 이해시킨다.

4. 목표어의 단어나 구절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함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

→ 영어 단어와 표현을 그저 언어적인 뜻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미 문화가 각 단어에 부여하는 내포적인 의미까지도 알게 한다.

5.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표 문화에 관해 얻게 된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 목표 문화의 일반화된 명제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생들이 목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7. 목표 문화에 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문화 사람들에게로의 감정 이입을 촉진하는 것.

→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Seelye(1984)의 문화 교육의 목표 7가지는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어 큰 비중을 두고 있다. Seelye(1984)의 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스스로 올바른 평가와 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에 문화 지도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 교육의 목표를 언급하였는데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한 연구로는 황인교(2008)가 있다. 황인교(2008)는 국내 대학 부설 기관 한국어학당의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2〉 황인교(2008)의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sup>7)</sup>

급	목표	정리
1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	기본 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
2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고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급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한국의 예절과 풍습)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문화 수용
4급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한국의 풍습, 미신, 속담 등)를 이해한다.	
5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 소개 및 설명 문화 소통
6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의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외국인 학습자 등급에 따라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한국 생활의 적응 및 간단한 한국 문화의 이해, 중급에서는 한국 문화의 수용, 고급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적 소개와 설명,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소통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등급별로 제시한 한국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한 세부 항목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 해당 단계의 목표로는 참고할 수 있으나 문화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곽지영 외(2007)<sup>8)</sup>에서는 황인교(2008)에서 제시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7) 유현정, 「문화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박사논문, 2015, 17쪽 재인용.

8) 곽지영 외,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325쪽.

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급별 교수요목 설계의 예를 제시하였다. 급별 교수요목에서 항목 설정을 자모 체계, 발음, 어휘·문법, 의사소통 능력, 사회 문화적 능력 등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문화 영역과 관련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3〉곽지영 외(2007)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 급별 문화 영역 학습 목표

급	사회 문화적 능력
1급	<p>한국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사말 중에 ‘어디 가요?’, ‘결혼했습니까?’ 등과 같은 개인적 질문을 친숙함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li> <li>2) 가족관계 어휘 구별</li> <li>3)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대 높임, 자기 낮춤</li> <li>4) 관계에 따른 호칭</li> <li>5) 의식주</li> <li>6) 상황에 따른 표현: 공식적 표현, 문어체 등.</li> </ol>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다.</li> <li>2)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li> <li>3)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화적인 내용을 언어 학습의 주제와 연결해서 배운다. 예) 식사습관, 교통 문화, 물건 사기 등.</li> </ol>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li> <li>②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예절과 풍습 등을 소개할 수 있다.</li> <li>③ 한국 풍습, 예절 등에 대한 지식을 요청할 수 있다.</li> </ol> </li> <li>2) 공적인 일을 어렵게 처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에게 필요한 공적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li> <li>②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 문의할 수 있다.</li> </ol> </li> </ol>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적인 것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직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li> <li>2)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한다.</li> <li>3) 전화 대화나 방송의 알림, 방송 보도 등을 이해할 수 있다.</li> <li>4) 직설적이고 개인적 흥미 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텍스트라면 이를 이해하고 그 텍스트로부터 다음 단계의 진술이나 주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li> <li>5) 일상적 사건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실용문, 일상적 주제에 대한 간단한 글 쓰기를 할 수 있다.</li> <li>6) 자신의 학력, 경력 등 자신의 신상 자료의 요약을 쓸 수 있다.</li> </ol>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양적인 내용의 담화가 가능하고 매우 전문적 주제가 아니라면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교환 등이 가능하다.</li> <li>2) 한국에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li> <li>3)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li> <li>4)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공공 기관에 자신의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을 호소할 수 있다.</li> <li>5)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li> </ol>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텍스트 생산이 가능하다.</li> <li>2) 한국 대학생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내용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 및 사회자 역할을 할 수 있다.</li> <li>3) 한국에서 조직체 및 기업의 운영이 가능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시 및 비판, 토론 등을 수행할 수 있다.</li> <li>4)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li> <li>5) 재판, 소송과 같은 공적 업무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다.</li> <li>6)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에 대한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li> </ol>

성기철(2001)도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표4〉 성기철(2001)의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 교육의 목표

상위 목표	문화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
하위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 다원성 이해: 다른 문화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게 한다.</li> <li>2. 일상적 생활 방식 이해: 대다수의 보편적 일상 생활 및 활동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li> <li>3. 보편적 사고방식 이해: 대다수의 일상 생활에서 구현되는 생각의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li> <li>4. 보편적 문화 지식 이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상적 문화 지식을 이해하게 함.</li> <li>5.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 언어와 문화가 상호 반영되는 현상을 이해하게 한다.</li> <li>6. 인위적, 자연적 산물 이해: 인간의 활동 결과물, 그리고 자연적 산물을 이해하게 한다.</li> <li>7. 문화 이해와 실천 태도: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갖게 한다.</li> <li>8. 일상생활 적응력: 문화 이해를 통해 일상생활에의 적응력을 길러준다.</li> </ol>

성기철(2001)은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 교육의 목표는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상위 목표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공통적 목표라고 한다면, 하위 목표가 등급별 세부 목표가 될 것이다. 다만 하위 목표를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한재영 외(2004)에서는 성기철(2001)의 문화 교육의 목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등급에 맞게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세분화 하고 있었다.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한재영 외(2004)<sup>9)</sup> 등급별 문화 교육 세부 목표

등급	문화 교육 목표 내용
초급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li> <li>• 일상생활에 관한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다.</li> <li>•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한다.</li> <li>• 문화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li> <li>•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한국 문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li> </ul>
중급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li> <li>•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과 의사소통 요령을 터득하여 일반적인 화제에 대하여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한다.</li> <li>• 한국어의 언어 표현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li> <li>• 한국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한다.</li> <li>• 한국의 사회 제도와 풍습을 이해한다.</li> </ul>
고급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로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한다.</li> <li>• 일반적 주제 및 추상적 내용의 말이나 글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해한다.</li> <li>• 문화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한다.</li> <li>•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바르게 소개한다.</li> <li>•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li> </ul>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등급별 총괄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공통적인 목표와 등급별 목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먼저, 공통적인 목표라는 것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모든 급에서 통용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면서 의사소

9) 한재영 외,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2004. 515-519쪽.



통 상황과 담화 상황에서 문화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등급별 목표라는 것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의 등급에 맞는 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초급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초급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중 1급과 2급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 교육 목표로 제시하여 그 내용은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고, 중급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중급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중 3급과 4급을 아우를 수 있는 목표로 제시하여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고, 고급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급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중 5급과 6급을 아우를 수 있는 목표로 그 내용은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비교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다'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목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

분류	문화 교육의 목표	
공통적인 목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상황과 담화 상황에서 문화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등급별 세부 목표	초급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급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고급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비교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다.

#### 4. 등급별 문화교육 목표에 따른 단계별 문화교육 방안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문화 교육 방안은 범주화된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주화라는 것은 국가 차원의 등급별 목표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등급별 세부 총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 3장에서는 국가차원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범주화한 등급별 총괄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문화 교육 목표에 따라 문화 교육 방안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하겠다.

4가지 단계는 이해 단계, 적용 단계, 생산 단계, 평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는데 단계별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이해 단계

본 단계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문화와 한국 문화의 일차적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본 단계에서 제시한 시각 자료를 통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배경 지식의 활용으로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일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문화 항목의 탐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초급의 경우는 그림 자료만을 제시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탐색할 수 있지만 중, 고급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바로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

끌어 낼 수 있도록 해당 문화와 관련된 명확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위계화 시킨 단계를 생략하여 바로 생산 단계 또는 평가 단계로 건너뛸 수 있다.

## 2) 적용 단계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단계에서 일차적인 접근으로 시각 자료와 그와 관련된 활동으로 제시된 문화 항목을 탐색했다면 적용단계에서는 탐색한 문화 항목을 실제 담화 상황이나 다양한 매체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문화 항목의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는 본 단계에서 제시된 자료에서 모르는 어휘 및 표현을 찾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찾은 어휘와 표현이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담화 상황이나 매체 등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자료에 해당 문화 항목이 잘 드러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활동 역시 외국인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담화 상황이나 매체 자료도 실제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 역시 이해 단계와 마찬가지로 위계화 시킨 단계를 생략

하여 바로 평가 단계로 건너뛸 수 있고,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지 못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다시 이해 단계로 역행이 가능하다.

### 3) 생산 단계

적용 단계에서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에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면, 생산 단계에서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문화 항목의 확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문화 항목을 이해단계와 적용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하였다면 생산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기능 영역별 중심의 활동(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으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 항목의 확장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단계는 해당 문화 항목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는 제시된 매체자료 또는 시각 자료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적용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한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하여 문화 항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 항목을 확장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사가 주의할 점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화 항목을 인지하는 것이 아닌 해당 문화 항목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 역시 적용 단계와 동일하게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적용 단계로 또는 이해 단계로 역행이 가능하다.

#### 4) 평가 단계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별 문화 항목 교수 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해-적용-생산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올바르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와 외국인 학습자 단계별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문화 항목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단계마다 진행되는 평가의 항목에 체크를 하면서 각 단계에서 문화 항목과 관련된 수행이나 문화 항목의 올바른 인지도를 평가하고 교사는 각 단계에서 문화 항목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때의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단계는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단계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개인의 태도에 따라 문화 항목을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 문화 항목을 수용할 경우 평가 단계가 끝이 될 것이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계를 역행하여 생산, 적용, 이해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

#### 5. 결론

본 논문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국가차원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경우 등급별 교육 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문화 교육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언어와 문화 혹은 문화와 언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와 문화를 개별이 아닌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에 대한 등급별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문화 교육에 대한 목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국가차원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의 등급별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 교육 목표는 공통적인 목표와 등급별 세부 목표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이해-적용-생산-평가의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 항목을 외국인 학습자에 노출 시켜 일차적인 교육으로 문화를 교육하는 것 이해 단계라면 적용 단계는 이해를 통한 문화 항목의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생산 단계는 다양한 매체 혹은 실제성이 있는 담화 자료 등을 제시하여 해당 문화 항목을 학습자가 스스로 확장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의 경우 단계마다 진행되는 평가의 항목에 체크를 하면서 각 단계에서 문화 항목과 관련된 수행이나 문화 항목의 올바른 인지도를 평가하고 교사는 각 단계에서 문화 항목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때의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단계 ‘이해-적용-생산-평가’의 단계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수행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고 역행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문화 항목에 대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추후 과제는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에 맞는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이론에 그친 교육 방안에 대해 실제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단계별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방안이 질적,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국의 문화 항목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곽지영 외,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20.  
한재영 외,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Patrick R. Moran, 정동빈 옮김, 『Teaching Culture, 문화 교육』, 경문사, 2004.  
Seelye, H. Ned,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II : National Textbook Company. 1984.

##### □ 참고 논문

- 성기철,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제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111-135쪽.  
유현정, 「문화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박사논문, 2015, 17쪽 재인용.

## ABSTRACT

### A Study on the Cultural Education Plan according to the Objectives of Foreign Learners - Focusing on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

Jung Won Ki<sup>10)</sup>

This paper is a research paper that presents cultural education to foreign learners. When educating culture in communication-orien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various materials are used as sanctions to educate cultur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presented cultural education goals based on the level-specific educational goals suggested by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standard curriculum as a way to present different cultural items for each institution and promote cultu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cultural education goals for each grade presented in this paper, four stages of 'understanding-application-production-evaluation' were presented as educational measures.

The four stages of 'understanding-application-production-evalu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omitted and reversed depending on the learner's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Through these step-by-step cultural items, foreign learners wrote

---

10) A lecturer at Hankuk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paper in the hope that they can understand Korean culture correctly and use it properly in communication or discourse situations while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with the cultural items through stage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Objectives by grade, Korean language standard curriculum, Cultural Education Goals, Cultural education by stages

#### 정 원 기

전 자 우 편 : jk1135@naver.com

논문 접수일 : 05월 31일

심사 완료일 : 06월 20일

게재 확정일 : 06월 27일

# 문화영토연구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이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에 두며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연구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문화영토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②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 ③ 효 문화의 확대 및 재생산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④ 민족문화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 ⑤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제5조 (이익공여 무상의 원칙)**

1.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2.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 **제 2 장 임 원**

####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명
- ② 이사 5명
- ③ 감사 1명

2.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 를 대행한다.
2. 이사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⑤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 **제 3 장 이 사 회**

#### **제15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선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⑦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제5조 제3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 **제1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1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 **제18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0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 4 장 재산 및 회계

### 제21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2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제23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25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26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제 5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변경사유서 1부
- ②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규정”이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및 투고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 2 장 조직 및 권한

###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2인, 편집위원 8인 이상, 편집간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4조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국내외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① 본 학술지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높고 학술 활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국내외 6개 이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대학 소속 교원이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3. 편집간사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문연 이사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를 도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3 장 업무와 활동**

#### **제7조 (업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결과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 (성립)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 중 제반 안전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4. 편집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전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4 장 투고 논문의 심사

### 제11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 제12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

1.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2.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 (심사 절차)

1.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간사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논문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들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9. 심사 결과 '수정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3차 심사는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90일)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심사소견), 종합 평가(게재여부), 심사 총평(심사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다음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각의 기준마다 상·중·하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한가?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 ③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 ④ 논리전개의 객관성- 논문의 자료는 적절하며 논리전개의 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가?
  - ⑤ 학계 기여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3. 종합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심사 총평은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1.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2.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3점, 수정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불가-0점을 부여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타 자세한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14조의 심사 절차와 제15조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 제1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치를 취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의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2조 투고범위

1. 『문화영토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① 국가의 소프트파워인 민족문화의 세계화 현상
  - ②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 ③ 국내외 한류(K-Culture)의 현황과 확산 방안
  - ④ '문화영토론'에 대한 학술적 분석
  - 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관련성을 인정한 주제
2.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3조 투고자격

『문화영토연구』의 투고는 '문화영토론'에 관심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제4조 연속투고 금지

1.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학회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2.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다음 호에 단독으로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과 함께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투고원고의 작성

1.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2.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5개 내외를 제시한다.
3.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6조 투고원고의 체제

1.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2.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메일주소를 명기한다.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4. 제목의 번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여한다.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 제7조 인용

1. 인용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한다. 반면, 인용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경우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좌로부터 5글자를 들여 써야 한다.
2. 인용하는 내용이 외국어로 기술된 경우 번역하여 실는다. 단, 원어를 병기할 경우 각주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간의 내용을 생략할 경우 (……) 말줄임표로 생략을 표기한다.

### 제8조 각주의 표기

1. 단행본

① 국문도서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10쪽.

② 외국도서

필자명, *저서명(이탤릭체 표기)*,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Martinus Nijhoff, 1973, p. 27.

※ 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 이름을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저자 1인 이름을 표기한 후 외(영문의 경우: et al.)로 표기한다.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

① 국문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이제현, 「문화콘텐츠의 창작」,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가현출판, 2020, 16쪽.

② 외국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이탤릭체 표기)*, 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p. 27.

3. 한글 번역본

필자명, 번역자명 옮김,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36쪽.

4. 학위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소속 대학 및 학과,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

예)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0쪽.

## 5. 정기간행물 또는 저널 속의 논문

### ① 국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권(제○호), 학회명, 출판년도, ○쪽.

예) 박선옥,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71쪽.

### ② 영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이탤릭체 표기), Vol.○, No.○, 출판년도, p. ○.

예)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p. 23.

## 6. 기타 자료

### ① 일간신문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 00면.

### ② 온라인 기사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 ③ 온라인 자료

[제목], url, (검색일자: 0000년00월00일)

예)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 7. 중복된 참고문헌 인용

① 국문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위의 글(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 (위의 글), 10쪽.

②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저자명 명기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김숙자, 앞의 책 (앞의 글), 17쪽.

베르너 쾰바르트, 앞의 책, 23쪽.

- ③ 같은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명까지 작성하며, 논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17쪽.

조광조, 『문화와 소비』, 20쪽.

- ④ 영문(외국어)의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표기한다.

예) *Ibid.*, p. 25.

- ⑤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 표기한다.

예) Longaker, M. G., *op. cit.*, p. 16.

### 제9조 참고문헌 표기

1. 참고문헌은 단행본, 참고논문, 기타자료로 구분하고, 단행본을 참고문헌의 최상단에 표기한다. 배열은 가나다 순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행본

② 참고논문

③ 기타자료

인터넷, 기사 등의 자료는 '기타자료'로 표기하며 참고문헌 최하단에 표기한다.

2. 참고문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위 1과 같이 세분하는 대신, 국내문헌(가나다 순), 외국문헌(알파벳순)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①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②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③ 외국저자의 인명이 다르게 표기된 번역서들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

외국저자의 인명은 통일해서 사용한다. 각주와 참고문헌에도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한다. 단, 본문에서 맨 처음 인용 시 각주를 활용해 인명을 통일했음을 밝힌다.

각주 예) 본 연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Adam Smith를 ‘애덤 스미스’로 번역하고자 한다. 동일인을 ‘아담 스미스’로 번역 표기한 저술에 대해서도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애덤 스미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 ④ 복수의 저자가 쓴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을 인용할 경우 대표저자 한 사람만 표기한다.

예) 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대중문화와 소비』, 김시습 외 지음, 신예문화, 2020.

#### 4.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 ① 단행본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김시습·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신예문화, 2020.

조광조, 『문화와 소비』, 문화시티, 2019.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 동일 저자의 단행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단행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 ② 참고논문

박선옥, 「스터디코리아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63-192쪽.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 동일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논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③ 기타자료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  
자: 0000년 00월 00일)

※ 동일 저자의 기타자료가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게시일 순서로 가장  
빠른 자료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 제10조

1.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책: (자판 입력)겹낫표(『 』)
- ② 작품: (자판 입력)낫표(「 」)
- ③ 전문용어: (자판 입력)흔끼쇠표(< >)

2.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 저자의 표시

-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  
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제12조 원고의 투고

- 1.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논문의 투고는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kish1691@naver.com]

### 제13조 투고료 및 원고료

- 1. 투고를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 심사료는 면제된다.
-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추가 인쇄료는 면제된다.
- 3. 게재된 논문에 한해 한시적으로 ₩500,000(세전)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 원고료 지급 시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게재 논문 저작권)**

『문화영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문연이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연은 이를 승인한다.

**제15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2호의 간행(2021. 12. 31)부터 적용한다.



##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간행물 성격)

『문화영토연구』는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K-Culture 전 문헌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실는다.

###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1. 『문화영토연구』는 문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화영토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 제5조 (심사 대상 및 방법)

1. 투고된 원고 중에서 문연의 일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심사방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 제6조 (연구 윤리)

『문화영토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문화영토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문화영토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민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문연 및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문연의 연구윤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문제 발생 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연 발행학술지 『문화영토연구』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

- 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 전에 타 학회(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5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범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1.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6조 (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관련 분야 전공자를 추천받아 문연 이사장이 위임하되,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
4.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 (심의요청)**

1.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문화영토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제반 연구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에 절차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원회 회의)**

-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등)**

1.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절차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1. 위원회의 조사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2.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조사과정은 물론 조사과정 종결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3 장 연구윤리 관련 제재 조치**

####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 및 삭제한다.
2.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 ① 표절의 경우,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② 위조 및 변조의 경우,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중복게재의 경우,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문연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4.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13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14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조사 방해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 4 장 세부 시행지침**

#### **제15조 (연구윤리 규정 게시)**

문연 홈페이지에 “『문화영토연구』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 **제16조 (연구윤리 자기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 투고 시 사전에 투고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 점검[체크리스트]”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 **제17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가 의심되는  
논문에 한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활용하여 투고 논문의 논문표절  
여부를 검토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권 1호 논문 심사 경위

투고 마감일	2022년 05월 31일
총투고 논문 수	7편
심사위원 수	편당 3인 이상
심사 마감일	2022년 06월 20일
수정 논문 접수	2022년 06월 26일
총 게재 논문 수	4편
논문 게재율	57.1%

## 임원 명단

이사장	홍일식
이 사	조경길, 손대오, 박종렬, 김정우
감 사	이대명
편집위원장	홍성걸(국민대) · 김정우(고려대)
	김윤선(고려대), 윤애경(창원대), 김찬기(한경대), 최영희(서울과기대),
편집위원	장은진(경성대), 장만호(경상대), 홍성구(경북대), 조은하(강원대), 오재혁(건국대), 김공숙(안동대)